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2525.56	코스닥	726.08
	(+38.92)		(+9.96)
금리	2.337	환율	1424.65
	(+0.07)		(+4.05)

오늘 한미 관세협상
최상목·안덕근 '투톱'
조선부문 카드 던지나
04



AI·연동성 끝판왕... 삼성 폴더블 'SW 생태계' 승부수

'갤럭시Z 시리즈' 7월 언팩

폴드7·플립7 등 내달부터 양산
초고사양·가볍고 얇은 디자인
AI대거 탑재한 '원UI 8.0' 공개
워치·버즈 연동성도 대폭 향상

삼성전자가 오는 7월 공개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시리즈의 경쟁력을 '하드웨어' 성능을 넘어 기기 간 연결성과 사용자 경험을 아우르는 '갤럭시 생태계'로 확장한다.

2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5월부터 경북 구미와 베트남 공장에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양산에 돌입한다. 초도 물량은 폴드 기준 약 16만 대 규모로 알려졌으며, 올해 7월 '갤



삼성전자의 '갤럭시Z 플립7' 예상 렌더링 이미지. /온리크스·안드로이드 헤드라인

럭시 언팩' 행사에서 새 폴더블폰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디자인은 더 얇고 가벼워지면서도 성능은 한층 높아졌다. 갤럭시Z 폴드7은 8인치 내부 디스플레이와 6.5인치 외부 디스플레이에 200MP 메인 카메라 등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Z 플립7 역시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커버 디스플레이를 기존 3.4인치에서 4인치로 키우고, 4300mAh급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할 전망이다. 두 제품 모두 더 얇아진 바디와 힌지 내구성 향상, 방수·방진 성능 강화 등이 적용돼 완성도를 높였다.

하드웨어 못지않게 주목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전략'이다. 삼성은 올해 3~4분기 중 인공지능(AI) 기능을 대거 탑재한 스마트폰 운영체제 '원 UI 8.0'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원 UI 7.0'이 배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후속 공개다. 업계에서는 "폴더블 출시 일정에 맞춘 전략적 배포"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UI 8.0은 AI 기능이 대거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S25 시리즈에만 제공되던 AI 기반 '나우 브리프' 기능이 폴더블에도 확대 적용된다. 나우 브리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되는 프란치스코 교황 유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해가 안치된 관이 23일(현지 시간) 성베드로 대성당 안으로 옮겨지고 있다. 교황의 시신은 사흘간 대성당에 안치돼 일반 신자들의 조문을 받는다. /뉴시스

프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패턴을 분석해 날씨, 일정, 뉴스 등 맞춤형 정보를 자동으로 요약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폴더블 전용 기능인 '멀티태스킹'과 '폴렉스 모드'도 대폭 강화된다. 예를 들어 폴드7에서는 8인치 대화면을 나눠 여러 앱을 동시에 띄우고, 플립7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상·하단에 다른 앱을

배치하는 등 폴더블 특화 사용자 경험(UX)을 구현한다.

갤럭시 기기 간 연동성도 크게 개선된다. 파일 전송 시스템 '퀵셰어'는 새로 추가된 '수신' 탭을 통해 사용자가 별도 설정 없이 '수신' 탭만 누르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 이어폰 페어링 방식도 개편돼 갤럭시 워치·버즈·탭 등 삼성

기기와의 연결 속도가 빨라진다

업계 전문가는 "폴더블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단순 하드웨어 경쟁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졌다"며 "폴더블 전용 소프트웨어로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것은 경쟁사와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비상경영 나선 롯데, 업계 첫 직무급제 추진

직무가치 따라 5단계 등급 분류
노동자 측 "업무 공정성 우려"

가족주의적 조직문화의 전통을 가진 롯데그룹이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찬반 논의가 안팎으로 거세지고 있다. 경기 악화 속 비상경영에 돌입한 사측은 이를 효율 제고 방안이라고 보는 반면, 노동자 측은 업무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유통업계 처음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직무를 총 40여 개로 구분하고, 직무가치에 따라 5개 등급(레벨1~레벨5까지)으로 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레벨5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장 낮은 레벨1과는 기본급에서 약 20%의 격차가 발생한다. 제도는 기존 기본급을 삭감하지 않고, 직무 등급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롯데지주 측 관계자는 "기업은 인사제도에 따라서도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인사부문에서도 글로벌 불경기에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그룹

대응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있었고, 그 차원에서 직무 기반의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롯데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6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비효율 자산과 점포를 정리하며 경영 효율화에 나선 롯데가 인사제도까지 개편해 인적자원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건 것이다.

국내에서 직무급제 도입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롯데 계열사 직원 김 모 씨는 "업무에 따라 등급을 나누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다"며 "오히려 회의감이나 무력감에 빠지는 직원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제도 도입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혁빈 공인노무사는 "특정 직무군 중심으로 성과급제가 강화되더라도 모두 정규직이라면 현행 노동법상 법적 차별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다만, 보상 체계에 대한 내부 공정성 논란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급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직무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각 직무의 가치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급제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무의 가치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용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

국민의힘 "결혼서비스법 제정"

민주당 "셋째 낳으면 대출 탕감"

대선판 달구는 '저출생 공약'
신혼·청년·다자녀 집중 공략

대한민국이 유난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줄곧 나오는 가운데,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동네에 아이 웃음소리를 돌려놓기 위한 결혼·출산·주거·돌봄·교육 공약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제고 여부로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에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으나, 임기 중 0명대로 진입해 정권 말인 2021년엔 0.81명으로 주저앉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2024년 0.75명이란 성적표를 뒤로 한 채 물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힘, 저출생 패키지 공약 본격 띄워

각 정당들은 조기 대선에서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할 저출생 문제 해결을 패키지 정책을 내놓거나 준비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아젠다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결혼·임신·출산·산후조리·자산형성까지 양육 전 과정의 제도적 허점을 들여다보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차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권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속행'에 "이례적으로 빨라... 공정 재판 촉구"
▲양향자, 한동훈 지지 선언... "젊고 혁신적인 보수정당 필요" /사진 뉴시스

▲홍준표 캠프에 현직의원 4명 합류... 일부는 명단서 빠져
▲조태열 "북한, 미국 타격능력 포기 선언해도 핵공격능력 허용 안돼"

▲행안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이체 내역 제출' 조례 발의

中, 히토류 美수출 봉쇄… ‘공급망 쇼크’ 대책마련 전전긍긍

K-방산·배터리 ‘발등의 불’

韓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 80%
美 편입 등 공급망재편 가능성
미·중 갈등 속 균형전략 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 금수카드를 본격화할 태세여서 미국발 관세전쟁이 ‘광물 무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산업계는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자재 비축과 원료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 안팎에선 중국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정부의 균형 있는 외교와 전략적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히토류 7종과 이를 가공한 영구자석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기업에 중국산 히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의 히토류 광산. /뉴시스

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며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제3자에 대한 제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히토류 1위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69.2%를 차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히토류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다. 특히 한국은 국내

수요 히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산 히토류 수입의존도는 79.8%에 달한다.

히토류는 이차전지, 첨단무기, 반도체 등을 만들 때 필요한 미래산업의 핵심 원료인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방산 업계와 배터리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방산 기업은 항공기 기체, 엔진 등 희귀 금속 수급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배터리의 핵심 소재 역시 공급망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차전지 핵심 부품에 쓰이는 히토류 17종 가운데 5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서다.

방산 업계는 원자재의 적정 재고를 지속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은 비축해 둔 재고 덕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보유량을 정확하게 산정해 적정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히토류 가격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 급등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톤당 1만 4000달러(약 1980만원)까지 치솟았고 2021~2022년 사이에는 약 1만 1500달러(약 2100만원)까지 상승했다. 두 시기 모두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공급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LS에코에너지는 현재 히토류 사업 추진을 위해 경영지원 부문장 등으로 구성된 팀을 가동 중이다. 향후 히토류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산 히토류 확보에 사활이다. 지난 3월 미국 최대 히토류 기업 에너지퓨얼스와 디뮴-프라세오디뮴 산화물 납품

관련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히토류에 대한 대체제가 개발될 경우 중국이 이를 전략무기로 활용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력해야 하며 가급적 중립적인 외교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미국이 우리를 전략적으로 보는 건 한국이 중국과의 협상 혹은 상황 조율을 잘할 때 더욱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적이라면 협상카드로서의 위치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기업들도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미국과는 원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국립부경대학교



모두의 미래, 함께하는 꿈!

Toward the Future, Dreaming Together!

강한 대학 | 지식 혁신 | 연계 협력 | 화합 미래

지역을 넘어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대학,
국립부경대학교가 “모두의 미래, 함께하는 꿈!”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도약합니다.



youtube




엔화가 100엔당 1000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거리환전소. /손진영 기자

원·엔 환율 1000원 웃돌아 엔저 끝… 7개월 새 최고치

3년여 만에 원·엔 환율 1000원 지속
엔·달러 환율 달러당 140엔 초반으로

원·엔 환율이 연일 100엔당 1000원을 웃돌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엔화 가치를 끌어 올렸다. 엔·달러 환율이 미·일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2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1.9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날 원·엔 환율은 미·중 간 무역 합의에 진전이 있다는 백악관 브리핑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주간 종가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4일 연속으로 100엔당 1000원을 웃돌았다. 원·엔 환율이 지속해서 10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3월이 마지막이다.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달러당 140엔 초반까지 내렸다. 특히 지난 22일(현지시간)에는 엔·달러 환율이 장중 139.88엔까지 내려,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엔화 가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바라보던 연초와 비교하면 엔화 강세다.

최근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격화한 데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달러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것”이라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겨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어 트럼프는 다음날인 22일에도 “그(파월 의장)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금리 인하의 적기다. 우리는 연준 의장이 녹장을 부리는 게 아닌, 조기에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란다”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를 재확인했다.

트럼프가 일본과의 상호관계 협상에서 ‘엔화 약세 중단’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빠르게 늘어가는 기대수명… 재고용 등 노동시장 개선 시급

2034년 한국인 기대수명 84.3세
1년 증가시 소비성향 0.48%p ↓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유도해야”

기대수명이 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밀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평균 소비성향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년을 늦추거나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펴낸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3.0%였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1%에 지속적으로 못 미쳤다. 이



지난 23일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에 따라 ‘소비성향’ (GDP 대비 민간소비) 역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2004년 52.1%에서 2024년 48.5%로 3.6%포인트(p)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과 관련해 KDI는 기대수명의 가파른 증가를 지목

했다. 한국인 기대수명은 2004년 77.8세에서 2023년 84.3세로 19년간 6.5세 늘어났다.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생애 주기상 퇴직 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퇴직이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난 20년간 소비성향 하락(-3.6%p) 중 대부분(-3.1%p)이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추정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은 평균 0.48%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1.9%p)와 60대(-2.0%p)에서 소비성향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청년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기대수명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DI는 소비성향이 2034년 46.3%까지 하락한 후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0년간 기대수명이 3.5세 증가하는 데 그치고, 초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을 자체가 둔화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민간소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시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제도 강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지난달 인구이동률 12.7%

서울 2개월 연속 순유입

부동산 경기, 인구 유출입 영향
“신규 아파트 지역 중심 전입 증가”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서울 인구가 두 달째 순유입됐다. 이에 반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한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4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6%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 2월(69만5000명) 이사 증가 등의 이유로 6.1% 증가했다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 입주 효과와 부동산 경기가 인구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인구가 두 달째 순유입됐다. 2월 5600명, 3월에는 1300명 순증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인구 유입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해 인천(3600명), 경기(600명), 충북(900명), 충남(900명) 전남(700명), 경북(400명) 등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반면 부산(-2000명), 대구(-1600명), 광주(-2500명), 대전(-200명), 울산(-700명), 전북(-500명) 경남(-500명), 제주(-400명) 등에서는 인구가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둔촌주공이 작년 11월 말부터 계속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도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지역은 2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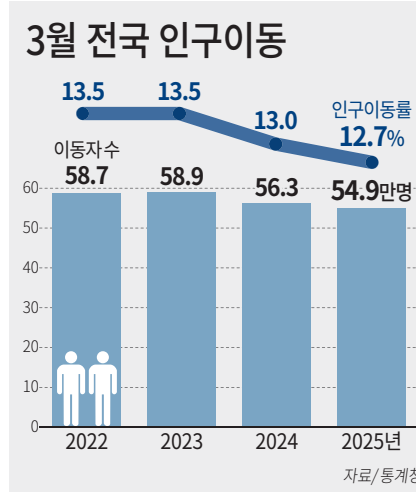
이어 “전남 장성과 나주 등 지역에 신규 아파트 입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순유입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전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24년 7월 7.8% ▲8월 5.9% ▲9월 9.9% ▲10월 13.4% ▲11월 14.3% ▲12월 11.6% ▲2025년 1월 11.6%에 이어 8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올해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월간 합계출산율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월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2월 5.1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명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돈돈한 안전자산

노란우산

더 오래,
더 든든하게

사장님 곁에
언제나

홍보대사 박미선

홍보대사 탁재훈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

복리 이자
목돈 마련

부금 내
대출 지원

공제금
압류 금지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167호(2024. 12. 24. ~ 2026. 1. 31.)

“車·반도체 살려야”… 韓, 美 통상압박에 ‘조선카드’ 승부수

오늘 한미 ‘2+2 관세협상’

최상목·안덕근 장관 투톱 출격
소고기·방위비 분담 등 쟁점 산적
트럼프 ‘비관세 리스트’ 전면 배치
美 조선업 돕는 맞교환 전략 검토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24일 워싱턴 D.C.에 자리한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현지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로 예정돼 있다. 우리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출격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협상에 임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22일 워싱턴 서쪽 버지니아주 델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서로에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며 “(협상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결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델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의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핵심 의제는 이미 국내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거론돼 왔다.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 해소, 미국 내 조선업 재건에 대한 양국 간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한국 내 비관세 장벽 탓에 자

국산 소고기 수출길이 제한돼 있다고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비관세 부정행위’이라며 8가지를 늘어놨다.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자국산업 보호용 농업기준 등이다. 이는 한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열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일 협상과 마찬가지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주한미군주둔 비용 등을 우리가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으로선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에 붙게 될 상호관세를 최대한 큰 폭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백악관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명시한 ‘25% 부과’에 대한 유예 기간은 7월 상순까지다. 어떤 내용의 주고받기가 이뤄질지 주목받는다.

우리 측은 조선 부문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깝고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

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조선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 내 조선소 수는 80% 넘게 줄어든 데다 연간 건조 능력도 5척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 선박시장 점유율이 0.2%에 그친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A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협상 장소가 백악관 인근 재무부 청사로 정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류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깜짝 방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을 찾은 한국 정부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 중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에도 참석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수출 벤처기업, 美·中 의존도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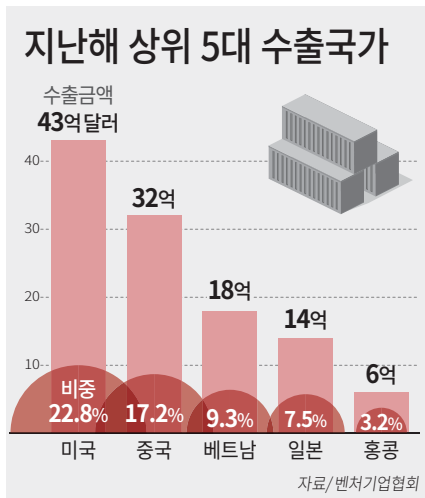
벤처協, 1만7155개사 무역동향 발표
40%, 美·中 수출편중 ‘G2 리스크’
화장품 1위, 기계·반도체장비 상위권

수출 벤처기업들이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위기다.

10곳 중 4곳이 미국과 중국 수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품목은 기업수나 금액 모두 화장품이 1위를 차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무역활동 벤처기업 1만7155개사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역동향’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벤처협회가 처음 발간한 무역동향 자료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출 국가는 미국이 3756개사, 43억 달러(약 6조원)로

전체 수출 금액의 22.8%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32억 달러, 17.2%), 베트남(18억 달러, 9.3%), 일본(14억 달러, 7.5%), 홍콩(6억 달러, 3.2%) 순으로 많았다.

‘G2’(미국·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벤처기업이 40%로 일반 중소기업(33%)보다 높았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는 화장품으로, 15억 달러를 수출해 금액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기계류(10억 달러, 5.1%), 반도체제조용기기(9억 달러, 4.6%) 등 첨단 분야 제품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벤처기업 10곳 중

3곳 가량은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벤처기업 3만7967개사 중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있는 무역기업은 1만7155개사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수출기업은 9936개사(26.2%), 수입기업은 1만4852개사(39.1%)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의 무역금액은 총 305억 달러이며 이 중 수출금액은 188억 달러, 수입금액은 117억 달러를 달성했다.

업종별로는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제조업 중 수출 1위 업종은 ‘기계(25억 달러)’,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 업종이 8억 달러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9만5949개사 중 벤처기업은 9936개사로 10.4%를 차지했다. 수출금액은 1177억 달러 중 벤처가 188억 달러로 16%였으며, 벤처기업의 기업당 평균 수출금액은 109만 달러로 중소기업(102만 달러)보다 많았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벤처기업의 1위 수출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교역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美 車업계 6곳 “가격 인상 불가피… 현지 기업 직격탄”

부품값 상승에 수리비 등 급등 전망
韓 車업계, 해외 생산라인 리스크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미국으로의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 업계는 물론 현지 자동차 업계도 부품 수입 관세 부과 취소를 요청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과 디트로이트3대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가 주축인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등은 서한을 통해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

고 판매는 감소하며, 차량 유지·수리비가 비싸지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등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트닉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현지 기업의 부담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국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기업이 캐나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캐나다로 조립용 부품을 수출하면서 1차 관세가 부과되며 현지서 조립을 끝낸 부품을 미국으로 다시 수출하면서 추가 관세가 붙는 구조이다. 자연스럽게 미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수입 부품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

솟을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차·기아와 폭스바겐과 같은 해외 업체뿐 아니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회사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GM과 스텔란티스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상당 물량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 포드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80%가 넘지만 주요 부품은 주변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은 세계 각국의 부담과 반감을 키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 현지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동차 가격이 1만 달러 가량 인상되고 부품 가격도 오르는 데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美·中 관세전쟁 격화 시 韓성장률 0.5%p ↓

고관세 유지되는 車·부품 수출 타격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주고받는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되면 관세의 성장률 영향은 제한적으로밖에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세 가지 통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시나리오 1과 2는 미국이 한국에 각각 10%,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미·중 간에는 100%가 넘는 상호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3은 한국에 10%, 중국에 60%의 일방적 관세만 적용되는 구조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리오 1과 2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은 각각 0.5%p 하락하며, 내년 성장률은 각각 2.2%p, 2.3%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씨티는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 비중이 34%로 높고, 이 품목은 25% 고율관세 대상이어서 실효 관세 인하 폭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충격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씨티는 한국은행이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총 7차례(0.25%p씩) 기준금리를 내려, 연 2.75%에서 1.00% 수준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중 갈등이 다소 완화된 시나리오 3에서는 올해 성장률은 0.2%p, 내년 성장률은 0.9%p 하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하정윤 기자 zelkova@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어서오세요!
사장님

**비대면 대출이
활짝 열렸어요!**

복잡한 대출 과정도 번거로운 영업점 방문도 없는 간편한 비대면 대출
이제, **KB국민은행 앱**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비대면 서비스 이벤트

정책자금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보증료 & 첫 달 이자 지원! 최대 300만원 응원금 혜택까지!

- **기간** : 2025.5.15(목)까지
- **참여** : KB스타뱅킹 / KB스타기업뱅킹 / KB스마트기업대출에서
방법 : 비대면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신규] 및 [KB스타뱅킹 이벤트 응모]
- **대상** : 비대면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정책자금대출]을 실행한 개인사업자 고객
- **혜택** : 보증료 50% 지원금 첫 달 이자지원금(최대 10만원) / 전원 지급
 사장님 응원금(1등:300만원, 2등:200만원, 3등:100만원) / 추첨 3명

[이벤트 유의사항] ※ 이벤트 기간(‘25.4.15(화)~5.15(목)) 이내에 KB스타뱅킹에서 [이벤트 응모], [대출신청] 및 상품가입신청기간(‘25.4.15(화)~5.6.16(월)) 이내 대상상품 가입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및 경품을 지급합니다. (응모, 대출신청, 상품가입은 순서 무관) *가입채널: KB스타뱅킹, KB스타기업은행, KB스타기대은행, 본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이며, 이벤트 마감시점 종료 대상에 제외됩니다. ※ 이벤트 당첨 시점은 응모순 첫 달 이자지원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당첨금 유무권 담보고객의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 이벤트 당첨 보충로 지원 시 당첨일 기준 월이자 지원액과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이벤트 당첨 첫 달 이자지원의 대입 방식은 고객요청, 천연 단위부터 절차하며 1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첫 달 이자지원 × 대입금액(천)(x)(1/12) × 첫 달 이자지원은 보증지급 목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대입금액은 이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상품 보충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며, 대출상환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연납일정용 대출상환시 실제 납부 보증료만 해당) ※보증로 지원 = 대출상환시 납부한 보증로 x 50% + 보증로 지원은 한도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 첫 달 이자지원 및 보증로 지원은 이벤트 기간 내 신청 후 대출 실행 완료된 고객에게 제공되며, 대출이 기존 1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대출 연체절차, 전역상환 계약제외) ※대출신청 제안고객만 19세 미만, 외국인과, 인터넷대출불가대상자, 신용평가 불합격, 부채 과다, 다중주택, 소상공인지원공판 정척사결과 발령받은 자 등의 경우 소상공인지원공판 고객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대입 요청은 잔고잔액, 공동대표 사인이자 또는 본인자산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자에게는 대출금, 대출원리, 수수료, 채소재항, 전역상환, 전역상환계약제외 경우 보증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하신 신용등급통장 계좌해지, 개명신청 등으로 인원이 불능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사망한 응원고객의 첫 달 이자지원, 보증로 지원은 고객명의로 대출 신청시 등록된 대리인이 자동에게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벤트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기소속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품(예:디지털인형, 사망선 응원글) 최초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제품관리권(기타소득세율 22%)은 고객 부담으로 경품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당첨자는 상품소속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KB스타뱅킹 알림(Push)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KB스타뱅크 마케팅 및 알림(Push) 미동의 고객의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KB스타뱅크 알림(Push) 설정 방법|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상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결과는 사상장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고물은 이벤트 관련 홍보물이며, 상품가지 조건에 따른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벤트 및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대출 상담센터(☎1644-0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가능 관련 유의사항| :상품(경기)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중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라며,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상환기간, 사용예과금 등 고객 개인신용평정이 하위할 수 있고,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 일반금융 거래는 은행의 계약제별 권유를 받거나 소비자로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중요 사항 이해를 위해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상품가입 페이지 확인하십시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정정보·특수지역·신용회복센터 등에 배드뱅크 포함하거나 은행의 대출금 평가와 실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던 연이상이 부과되며, 분할상환금액은 원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일상환금액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해 연이상이 부과됩니다.(연이상이 적용되는 대출금리에 연 5.0% 가하여 적용되며, 최고 연방이자율은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와 최고 연이자자를 연산한 경우 연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됩니다.) *대출이율 및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원금) 계산식: 제1원리(가산금리) - 만 원리를 빼면 원금(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갚아지지 않는 이자지급이 될 때까지는 원금이 따라 부과됩니다. *신용불량기간 보증서 관리보증금은 고객 부담이며 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 0.5%, 최대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2025.04.21 기준)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기배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천원(기배세액 3305원율) *소상공인·자영업자·중단 정척사 결과 제출한 확인서는 지원금 지급대상 시 활용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및 대출한도(금리) 등은 재단 신심 *실질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역·음향·복지재단의 상환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중단 정척사 상환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 해당 지역·음향·복지재단에 연락하십시오) *소상공인·자영업자·중단 정척사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판정대상자로 추천받은 소상공인 *실질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상자 판정대상자로 추천 받은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보증서 대출금액 범위 내, 일반경영안정자금 기준) *금리: 최저 연 2.99% ~ 최고 연 3.39%(기준금리 연 2.75%, 가산금리 연 0.20% ~ 연 0.60%), 복기별 변동금리, 25년 2분기 기준 2025.04.21 기준) 금리우대객 우형별 연 0.1%p 적용, 최대 연 0.4%p 지원 *정착유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 받은업체, 소·진공 직접대출 상환성함, 제비문기개업증 ※정착유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금지 업체 등 *우호기업 *사회안전조직: 지역발전 기부금보조, 풍수해지원금, 노인우대금제 ※상환성함: 소·진공 직접대출 상환성함 소상공인 등 *상환방법: 2년 가지 3년 분할상환 ※이자: 매 3개월마다 해당월의 20일 이전 (무착) ※유효: 유효: 70%는 37월입니다. 20일에 원금공급분할상환하고 30%는 최종회차에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지역·음향·보증자 보증금 *소·중간기업 신청비: 2025-1584호(2025.04.21) *유효기간: 2025.04.21 ~ 2025.06.30까지



KB 국민은행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원영이랑
같이 쓸래요?"

우리은행이 만든 우리나라 알뜰폰의 새 이름

 우리WON모바일

통신 요금의 알뜰함을 **MORE**

일반 요금제 대비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우리은행 계좌로 할인을 **MORE**

우리은행 금융실적에 따라, 매달 최대 3,300원 할인

전용 적금으로 금리 혜택을 **MORE**

우리WON모바일 전용 적금 가입 시, 우대 금리 적용 혜택
*적금 5월 출시 예정

친구끼리 결합해 데이터를 **MORE**

친구와 결합 시, 최대 20GB 추가 지급 및 최대 3,300원 통신비 할인

제휴카드로 추가 할인을 **MORE**

제휴카드 실적에 따라, 최대 2.5만원 통신비 할인



우리WON모바일
가입하러가기



우리WON뱅킹
바로가기

우리WON뱅킹에서  우리WON모바일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 우리WON모바일은 홈페이지(www.wooriwonmobile.com)를 통해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 우리WON모바일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WON모바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1000,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로 문의 바랍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3867(2025.04.18~2026.04.21)

 우리은행

보험업법 개정안 14건 계류… 22대 국회서 10개월간 ‘답보’

보험료 카드납·설계사 결격강화 등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서 묶여
6·3 조기 대선으로 더 늦어질 듯

22대 국회가 개원 10개월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 14건을 쏟아냈지만 아직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카드납부터 보험사기 처벌 관련까지 소비자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민감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다. 6·3 조기 대선으로 당분간 보험 관련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14건이다. 모두 정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과거 기록과 비교해도 답보 현상은 두드러진다. 20대 국회는 개원 10개월 시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지만 10개월을 조금 넘긴



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이미지.

2017년 4월 첫 개정안이 통과됐다. 21대 국회는 같은 기간 1건을 처리해 최소한의 진전을 보였다. 반면 22대 국회는 10개월째 0건이다.

22대 국회에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발의된 개

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집, 제재, 자산운용, 손해사정자 자격 등이다.

가장 관심이 쏠린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안이다. 보험사는 모든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아야 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유영하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나 형법상 보험사기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보험설계사·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설계사 등록 당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 없이 즉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회전문 영업’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부당 승환 취소 부활권 법안도 관심사다. 신용정보원의 ‘비교·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불완전판매를 가려내기 쉬워졌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장 건전성을 겨냥한 차규근 의원은 보험사 자산운용비용을 산정할 때 총자산과 주식·채권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 지배구조 잡수도 막겠다는 것.

이밖에도 설계사 경쟁계 근거를 마련하고 교차모집 허용 범위를 소속 보험사의 자회사 상품까지 넓히는 방안, 손해사정사 자격을 단일화해 비용을 줄이자는 개정안까지 현장과 밀접한 조항이 대기 중이다.

다만 입법 정체는 소비자·업계 모두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보험료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안은 자동납부·포인트 적립을 원하는 소비자 편익과 카드 수수료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우려가 맞서 있다. 설계사 결격 확대안은 모집 질서 강화와 생계 제한 논란이 충돌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카드납 보험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납부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계약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보험사기 형사처벌 관련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은행 예금금리 ‘뚝’, 대출금리는 여전

5대은행 예금금리 연 2.60~2.73%
주담대 금리 변동형 3.31~6.07%
예대금리차 3개월 새 0.23%p 늘어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금리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금 금리는 낮추고 있지만, 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에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예금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2.60~2.73%다. 이들 은행이 전월에 취급한 평균금리(2.88%)와 비교해 하단기준 0.28%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5대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내렸다.

신한은행의 불편한 정기에금 금리는 전월 평균 2.89%에서 2.6%로,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은 같은 기간 2.94%에서 2.65%로 각각 0.29%p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Star)정기

예금은 전월 평균 2.92%에서 2.65%로 0.27%p 내렸고,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2.91%에서 2.70%로 떨어졌다. NH농협은행은 0.05%p 인하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금리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해 3.50%였던 금리를 10월과 11월 0.25%p씩 인하하고 올해 월 한차례 더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준 5대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 기준 3.31~6.07%, 고정형(5년물)기준 3.12~5.62%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지난 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4.35~4.52%)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변동형 1.55%p, 고정형 1.1%p 올랐다.

변동형 신규 취급 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는 지난해 ▲12월 3.22% 올래 ▲1월 3.08% ▲2월 2.97% ▲3월 2.84%로 낮아지고 있다. 고정형 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는 은행채(5년물)도 지 난해 말 3.09%에서 지난 22일 기준 2.74%로 떨어졌다. 그만큼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5대은행의 가산금리는 2월 2.3~3.49%에서 3월 2.31~3.56%로 상단기준 0.07%p 올랐다.

이로 인해 예대금리차도 벌어지는 상태다. 5대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월 평균 1.20%에서 ▲2월 1.37% ▲3월 1.43%를 나타냈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받는 대출금리와 돈을 맡아주며 지급하는 예금 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기조로 심사가 강화된 부분은 있지만, 대출금리 특성상 기준금리를 3~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시그널에 따라 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금은 후행지표로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돼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싱크홀 공포… 국토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회의
상반기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연이은 땅꺼짐(싱크홀)과 지반침하 사고에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을 특별 점검한다. 상반기 중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 조직(TF)(이하 TF) 8차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과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

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하나더소호’
대상 여부·가능 한도 등 간편 진단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대상 여부와 가능 한도 등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사전 진단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소상공인 고객들은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점이나 소진공 방문 없이 정책자금대출 대상 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사전 진단만으로도 ▲가능 정책자금대출 종류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 대출 심사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 더한 종묘 오디오 가이드

신한은행, 무료 음성해설 서비스
배우 손현주·송지효 내레이션 참여

신한은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디오가이드 서비스를 한다.

‘종묘 오디오 가이드’는 관람객이 안내관의 QR코드를 디지털기기로 스캔하면 신한은행의 ‘아름다운 은행’ 웹사이트에 자동 연결돼 무료로 음성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해설은 정전·향대청·영녕전 등 종묘 주요 권역 별로 구성했으며, 각 공간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을 화자로 설정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보를 전한다.

특히 이번 오디오 가이드에는 배우 손현주와 송지효가 내레이션에 참여해 생동감과 전달력을 더했다. 영어·중국어·일본어·수어 등 4개 언어 버전도

또한, 사전진단 후 정책자금 대상으로 판정되면 소진공 대출 신청까지 직접 연계되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판정결과와 함께 하나은행의 사업자 전용대출 상품 안내를 제공해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대안 솔루션도 제시한다.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채널인 ‘하나더소호’에서 제공되며, 해당 채널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하나원큐기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23일 “소상공인 손님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진단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디오가이드 서비스를 한다.

함께 제공해 외국인 및 청각장애인 관람객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3일 “스토리텔링을 더한 종묘 오디오 가이드가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역사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 치열… 韓 고급화 vs 中 가성비

CATL, 2세대 센싱 배터리 등 공개
K배터리 3社, 전고체 기술개발 집중
“원가혁신 등 제품경쟁력 확보 중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상하이모터쇼에서 급속충전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 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저비용 고효율 배터리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배터리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ATL은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테크데이 2025' 행사를 열어 나트륨(소듐)이온 배터리 나스트라(Naxtra)를 공개했다. 나스트라의 에너지밀도는 1kg당 175와트시(Wh)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다. 주행가능 거리는 약 500km로 영하 40도에서도 충전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전력 저하가 크지 않다. CATL은 오는 6월부터 나트륨이온배터리의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ASB.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단 5분 충전에 520km를 주행할 수 있는 2세대 센싱(Shenxing) 배터리도 공개했다. 2세대 센싱 배터리는 최대 8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서도 단 15분 만에 5%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최근 BYD가 발표한 5분 만에 400km 주행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보다 주

행거리가 훨씬 긴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저비용 고효율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에서 대규모 생산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과는 정반대로 고급화 전략을 채택해 고성능, 고용량 배터리 생산 등의 기



CATL 나트륨이온 배터리.

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에너지밀도와 출력이 기존 배터리 보다 훨씬 뛰어나고 전기차의 큰 취약점으로 꼽는 화재 위험도 크게 낮춘다. 또한 주행거리는 2배 이상 늘어나 성능이 지금보다 월등

히 향상된다.

삼성SDI는 오는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연내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구축 후 오는 2030년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와 생산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시장전략이 다른 만큼 향후 3~4년 뒤 글로벌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의 약 80%,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 75%를 생산하면서 독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의 고용량 배터리 기술력이 개화하게 될 경우 중국을 압도할 것”이라며 “한국이 중국을 앞서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 확보와 원가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하이닉스, ‘CMM-DDR5’ 고객 인증… “제품 공급 준비”

96GB 인증 완료… 128GB 후속 절차
“서버 시스템 적용시 초당 36GB 처리”

SK하이닉스가 CXL 2.0 기반 D램 솔루션 ‘CMM(CXL 메모리 모듈)-DDR5 96기가바이트(GB)’ 제품의 고객 인증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꼽히는 CXL 기반 DDR5 제품이 실제 서버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CXL은 컴퓨팅 시스템 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용량, 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다. 여러 개의 CXL을 묶어 대용량 메모리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풀링(Pooli



CMM-DDR5

/SK하이닉스

ng) 기능을 갖춰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서버 시스템에 이 제품을 적용하면 기존 DDR5 모듈 대비 용량이 50% 늘어나고, 제품 자체의 대역폭도 30% 확장돼 초당 36GB의 데이

터를 처리할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고객이 투입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6GB 제품 인증에 이어 128GB 제품도 다른 고객과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품은 10나노급 5세대(1b) 미세 공정을 적용한 32기가비트(Gb) DDR5 D램을 탑재해 일정 전력 단위당 처리할 수 있는 초당 데이터 용량이 높다. 회사는 “인증을 빠르게 마무리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적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CXL D램 개발과 더불어 CXL 생태계 확장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자체 개발한 이종 메모리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HMSDK)를 오픈소스 운영체제

리눅스(Linux) 탑재해 CXL 기반 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강욱성 SK하이닉스 부사장(차세대 상품기획 담당)은 “당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확장에 한계가 있는 기존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다양한 응용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메모리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SK AI 서밋 2024’에서 ‘옵티멀 이노베이션’을 제품 방향으로 공개한 바 있다. 기존 시스템의 비용은 낮추고, 확장성은 높이기 위한 AI 시스템 최적화 제품 혁신을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



현대차 2025 코나 외장.

현대차 ‘2025 코나’ 출시

현대자동차가 상품성을 강화한 대표 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 ‘2025 코나’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2025 코나는 주요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양을 실속 있게 구성한 신규 트림 ‘H-픽’ (H-Pick) 운영과 함께 트림별 기본 편의사양을 강화했다.

2025 코나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 ▲모던 2478만원 ▲H-Pick 2559만원 ▲프리미엄 2821만원 ▲인스퍼레이션 3102만원이며, 가솔린 2.0 모델 ▲모던 2409만원 ▲H-Pick 2499만원 ▲프리미엄 2753만원 ▲인스퍼레이션 3034만원이다.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던 2955만원 ▲H-Pick 3046만원 ▲프리미엄 3254만원 ▲인스퍼레이션 3512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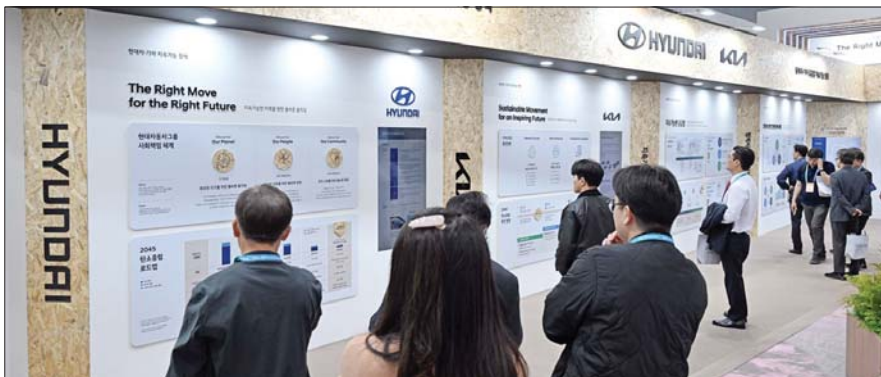
현대차·기아, 자동차부품기업 지속가능 경영 돕는다

‘ESG·탄소중립’ 박람회 개최

현대자동차·기아가 자동차부품산업 진흥재단과 함께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탄소중립 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내 최초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ESG·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건설, 현대차증권 등 4개 현대차그룹사를 포함해 11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저탄소 소재 등 1차·2차 부품 협력사와 원·부자재 협력사 등이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과 설비를 선보인다. 또 안전 모니터링 카메라, 사이버



관람객들이 23일 열린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부품산업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침해 대응 컨설팅 등 산업안전 및 보안에 관련한 솔루션을 소개하고 지속가능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ESG와 탄소중립 관련 최신 기술을 보유한 참여사를 박람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행사에서 ▲재활용 오토모티브 카매트·보조매트 ▲재활용 시트벨트 ▲페 에어백 분리 기술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모빌

리티 부품과 소재를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된 재활용 카매트 및 보조매트는 재활용 소재 함유율을 기존보다 3배 높은 제품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약 34%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한 폐 안전벨트를 새 안전벨트로 재생시키는 순환 재생 시스템을 선보이며 버려진 에어백의 코팅층을 분리한 후 해중합 기술을 활용해 재생시키는 시스템도 소개할 예정이다. 당사 친환경 제품을 알리기 위해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적용한 타이어 코드를 전시하고 재활용 소재가 사용된 타이어 단면을 배치해 이 고객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에너지 저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및 탄소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엘픽쇼’ 라이브방송

LG전자가 ‘LG 오브제컬렉션 휘센 쿨’ 에어컨 출시를 기념해 오는 24일 저녁 8시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 LGE닷컴에서 라이브방송 ‘엘픽쇼’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엘픽쇼에서는 휘센 쿨 전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으로, 투인원(2in1) 3개, 스탠드형 3개 총 6개 모델 중 필요한 사양에 맞춰 선택 구매할 수 있다.

방송 당일에는 모델별 6~7%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 인증 시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혜민 기자

“건강 돌보고 공기정화도 척척”... 집안 누비는 ‘홈닥터’ 등장

SK네트웍스, 웰니스 로봇 첫 공개
위커힐서 쇼케이스 7월 일반 출시

“우리 기술은 사람 지향” 웰니스 강조
LLM 음성대화·바이탈 체크 지원
이동식 청정, 고정형보다 효율↑
美·말레이 공략... 美엔 생산기지

SK네트웍스와 SK매직이 웰니스 로봇 브랜드 ‘나무엑스(NAMUHX)’를 공개했다. 나무엑스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웰니스 로봇 ‘A1’을 오는 7월 일반에게 내놓는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웰니스 로봇에는 우선 에어 솔루션(Air Solution), 바이탈 사인 체크(Vital Sign Check) 기능을 장착했다. 로봇이 이동하면서 집안의 공기를 맑게 하고, 원격으로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해 건강 관리를 돕는다. 향후혈당 및 BMI(체질량) 지수 등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케어 기능도 추가로 제공한다.

SK네트웍스 사업총괄 겸 나무엑스



23일 서울시 광진구 위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웰니스 로봇틱스 브랜드 ‘나무엑스(NAMUHX)’ 쇼케이스에서 최성한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 겸 나무엑스 EA(Executive Advisor)가 브랜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SK매직

EA(Executive Advisor)를 맡고 있는 최성한 사장은 23일 서울 광진구 위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연 쇼케이스에서 “‘나무엑스(NAMUHX)’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술은 ‘휴먼(Human)’ 즉,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서 “AI를 활용한 ‘혁신성’, 사람과 조화로운 ‘실용성’, 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성’을 브랜드에 담아 로봇틱스를 통한 웰니스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선보인 웰니스 로봇은 LCD 화면을 10초 정도만 바라보면 혈압 등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사람이 “하이 나무, 바이탈 사인 측정 해줘”라고 주문하면 “네, 바이탈 사인을 체크합니다. 혈압은 최고 〇〇〇, 최저 〇〇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〇〇입니다”라고 말한다.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등도 체크해준다.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공기청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1대만으로도 집이나 사

무실내 여러 공간의 공기도 맑게 해준다.

에어 솔루션 기능을 갖춘 웰니스 로봇은 30평 기준으로 고정형 공기청정기 3대를 사용했을 때보다 청정 속도는 1.5배 빠르고, 오염도는 50% 더 낮출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게다가 챗 GPT 4.0mini 모델을 장착, 대화를 통해 원하는 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들 기능은 온디바이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 연결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SK매직 김완성 대표는 “웰니스 로봇은 오는 6월 사전 예약을 받고 7월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웰니스 영역으로 확장해 모든 솔루션이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봇은 일시불 뿐만 아니라 렌탈로도 판매한다.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보이는 웰니스 로봇은 미국과 말레이시아를 우선 공략한 후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에도 진출한다. 특히 미국에는 전략적 파트너와 협업을 통해 판매 및 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향후엔 생산

거점을 마련해 세계 최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나무엑스는 ‘오픈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SK네트웍스가 지난 7년간 축적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인 ‘하이코 시스템(Hicosystem)’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전문가들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인재들로 구성된 AI 스타트업 ‘피닉스랩(PhnyX Lab)’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AI 개발을 지원했다. 퀵컴코리아, 마음AI, 에브리봇, 클로봇, 큐버 등의 기업과도 함께 하고 있다.

최성한 사장은 “나무엑스를 통해 글로벌 웰니스 오픈 생태계를 만들기위해 다양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실행력도 중요한데 여러 스타트업, 플랫폼과도 협업해 고객들이 필요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쇼케이스 본행사에 앞서 최태원 SK 회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를 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34개 펀드 7538억 벤처투자 선정

3개월 내 결성 조건, 신생 VC 전용
창업 초기·가업 승계 집중 지원
롯데 “하반기 투자 댄 회복세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3747억원을 출자해 34개 펀드 753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선정한 벤처펀드는 3개월 내 결성을 전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펀드가 7월 내 결성될 예정이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는 10개 펀드, 1771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루키리그에는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에선 1조 원의 10%인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이 펀

드 결성 기회를 갖고,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지원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루키리그 다음으로 큰 1699억원 규모를 선정했다. 50억원 내의 소규모 펀드를 통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소형분야를 신설한 결과 초기기업 발굴 및 보육에 강점을 가진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는 최근 투자유치 어려움을 겪는 초기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투자 대상을 전국 단위로 개편한 라이온 펀드는 171억원 규모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토대로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

A 펀드와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는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청년창업 펀드(668억원), 여성기업 펀드(200억원), 재도약 펀드(529억원)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새로 적용했다.

비수도권 투자, 초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운용사는 우대 선정해 지방투자 및 초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촉진을 위해 내년까지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한다. 비수도권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노로바이러스 걸러 깨끗한 물”

‘얼음정수기 RO’ 출시

코웨이가 깨끗하게 걸러낸 맛있는 물과 풍부한 얼음을 제공하는 ‘얼음정수기 RO’를 출시했다. 얼음정수기 RO는 미세 플라스틱부터 중금속까지 거르는 RO필터 탑재, 단단하고 깨끗한 얼음 제공, 강화한 위생 기능 등이 특징이다.

23일 코웨이에 따르면 얼음정수기 RO는 물속에 녹아 있는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바이러스 등 일상 속 유해 물질을 간간하게 거르는 RO필터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

이 제품은 탁월한 성능을 지닌 RO필터 테크놀로지를 탑재해 노로바이러스

도 99.99% 제거한다.

얼음정수기 본연의 기능도 강화했다. 제품에 코웨이만의 특허 기술인 ‘크리스털 제빙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얼음을 만들 때 물 속 기포를 제거해 단단하고 깨끗한 얼음을 생성한다. 이 외에 ‘듀얼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일 최대 4.9kg의 풍부한 얼음을 즐길 수 있다.

위생도 강화했다. 얼음을 만드는 모든 핵심 부분을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 불순물이나 잔여물 없이 깨끗한 얼음을 생성한다. 또 얼음 저장고, 얼음 파우셋, 출수 파우셋 등 얼음과 물이 나오는 모든 곳을 살균하는 ‘4중 UV 살균 시스템’을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

LG이노텍, 카메라·기관 덕에 1분기 ‘역대최대 매출’

고사양 모듈 덕에 분기 최대 매출
광학 경쟁 심화로 수익성은 악화

LG이노텍이 올해 1분기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고사양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관 수요 회복이 매출 증가를 견인한 반면, 전방산업 성장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은 줄었다.

LG이노텍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5년 1분기 매출 4조9828억 원, 영업이익 1251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5%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8.9% 감소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고사양 스마트 폰용 카메라 모듈의 안정적 공급과 반도체·디스플레이 기관 수요 회복, 우호적인 환율 환경 덕분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광학 부문 경쟁 심화로 수익성은 다소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사업 부문별로는 광학솔루션사업이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한 4조138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고사양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하며 비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냈다.

기관소재사업은 반도체용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FC-CSP), 고주파 시스템인 패키지(RF-SiP), 디스플레이용



LG이노텍 구미 사업장의 드림 팩토리 전경. /LG이노텍

칩온필름(COF) 기관 등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3,76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해민 기자 hyem@

국토교통부로부터 AMC 설립 인가

유진그룹이 부동산 금융시장에 뛰어든다.

유진그룹은 계열사인 유진리츠운용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AMC(자산관리회사)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리츠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기존 섬유 계열사인 유진한일합섬이 지난 2월 70억 원 규모의 신규 출자를 단행했고, 이번에 AMC 설립 인가를 획득하면서 유진리츠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인가를 계기로 유진리츠운용은 디벨로퍼 중심의 사업 구조에 금융 기능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유진그룹은 기존 사업 구조에 부동산

금융을 더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특히 리츠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체계적이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진그룹은 기존 사업 구조에 부동산 금융을 더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특히 리츠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유진리츠운용의 리츠 AMC 인가 획득을 통해 그룹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국내 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리츠 상품을 선보여 시장에서 신뢰받는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www.dseshop.co.kr


동성제약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림,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커버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
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구입 문의 **080-854-0082**

아산 첫 민간공원 특례단지 ‘자연친화 입지’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GS건설

총 1588세대… 계약금 500만원에 중도금 무이자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서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를 선보인다. 아산시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총 1588세대로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됐다. 단지 1블록은 지하 3층~지상 35층, 5개 동, 총 739가구 규모다. 단지 2블록은 지하 4층~지상 37층, 6개 동, 총 849가구 규모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74~149㎡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까지 적용했다. 입주시까지 자금부담이 없어 실수요자는 물론 신혼부부, 투자 수요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지는 약 16만㎡ 규모의 용화체육공원(예정)과 함께 조성돼 자연친화 입지가 탁월하다. 해당 공원에는 다양한 여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공원 부지의 약 70%를 기부채납해 입주민에게 사실상 ‘내 집 앞마당 정원’을 제공한다.

주거 편의성 또한 우수하다. 4베이 판상형과 타워형을 혼합 설계해 선택 폭을 넓혔으며, 팬트리·드레스룸·다용도실 등 특화 공간을 갖췄다. 특히 전용 84㎡A 타입은 와이드 다이닝 구조를 적용해 실용성과 감각적인 공간 구성을 모두 만족시킨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클럽자이안’에는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영어도서관, 공유오피스 등이 마련되며, 자이 전용 앱 ‘자이안 비(XIAN vie)’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과 관리가 가능하다.

GS건설 관계자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를 바탕으로, 고품질 주거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분상제 적용… GTX·SRT 등 광역교통 예정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지오

대우건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17개동에 총 1524세대

대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화성 동탄2신도시 A79-2BL(산척동)에 조성되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지오’를 내놓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동, 총 1524세대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84㎡A 677세대 ▲84㎡B 316세대 ▲84㎡C 14세대 ▲84㎡D 114세대 ▲97㎡A 386세대 ▲97㎡B 14세대 ▲142㎡P 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지오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사업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

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인 2기 신도시다. 도시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며, 동탄호수공원과 같은 주요 자연 공간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레저를 제공한다. 또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동탄프리미엄 아울렛 등의 대형 쇼핑몰과 각종 병원 및 교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GTX-A, SRT, 신분당선 연장, 동탄트램 등 다양한 광역교통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GTX-A 동탄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약 22분 만에 도달 가능하며, SRT 노선을 이용해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단지 앞에 동탄 트램 2호선 ‘208정거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지오는 커튼월룩이 적용된 현대적인 외관 디자인과 4베이 판상형 위주의 내부 구조로 지어진다. 주차대수는 총 2290대로 공동주택 가구당 1.5대로 많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일원에 마련된다.

2451가구 대단지… 도보권에 GTX-A 노선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현대건설

단지 앞 대은초교, 반경 1km 이내에 중·고 위치

현대건설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내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8개 동, 총 2451가구로 조성되는 매머드급 대단지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1·59·74㎡ 483가구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51㎡B 70가구 ▲51㎡C 14가구 ▲59㎡A 190가구 ▲59㎡B 10가구 ▲59㎡B-

1 47가구 ▲59㎡C 76가구 ▲74㎡A 53가구 ▲74㎡B 14가구 ▲74㎡C 6가구 ▲74㎡D 3가구 등이다.

단지는 도보 10분대에 GTX-A노선 연신내역(3·6호선)이 위치해 있다. GTX-A노선은 지난해 말 파주운정~서울역 구간까지 개통됐고, 오는 2026년 서울역~수서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면 교통 편의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앞으로 대은초가 자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는 예일여중·고, 동명여고가 있다. 구산역 및 연신내역 학원가가 인접하고, 은평구립도서관도 가깝다.

이와 함께 NC백화점 불광점, 이마트 은평점, 스타필드 고양 등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으며, 대조전통시장, 연서시장 등 다수의 전통시장도 가깝다. 또 서북권 최대 상권인 연신내역 상권과 불광역, 역촌역 주변 상



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주변에서는 유일한 평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다. 단지 외관은 자연스러운 물결의 흐름을 컨셉으로 한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으로 커튼월룩, 아이코닉 루버, 세라믹 패널 등을 도입한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주거·교육·생활인프라 갖춘 ‘미니 신도시’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

우미건설

총 419세대… 28일 특별공급, 29일 1순위 청약

우미건설은 부산 장안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공급하는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를 분양한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는 지하2층~지상 25층, 총 4개동에 전용면적 59~84㎡, 총 419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A 주택형 118세대 ▲59㎡B 주택형 48세대 ▲84㎡A 주택형 253세대 등이다. 전 세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

순위, 30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9일, 정당 계약은 다음달 20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장안지구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에 조성되는 약 21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다. 체계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조성 중이다. 장안지구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장안 일반산업단지, 반룡 일반산업단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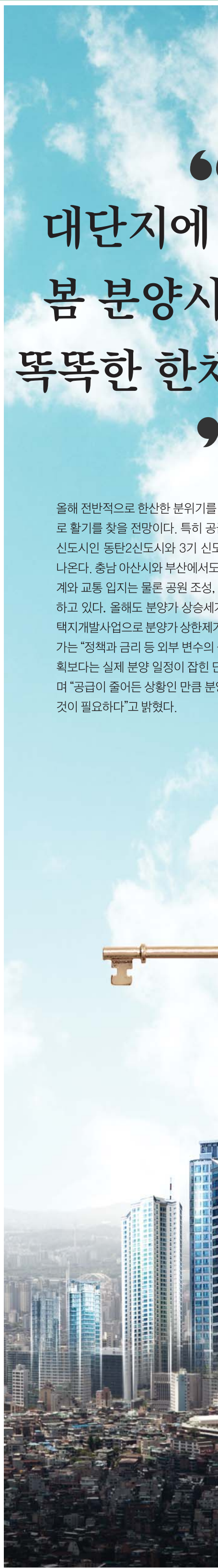
단지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과 도보권에 위치해 편리한 쇼핑·여가 환경을 갖췄다. 지난해 9월 2단계 리뉴얼을 마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기존 대비 약 56% 확장되며, 입점 브랜드도 170여 곳에서 270여 곳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다이소, 올리브영, 웨이크썬 등



생활밀착형 브랜드가 입점해 일상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동해선 좌천역을 이용하면 센텀역, 오시리아역 등 주요 거점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부산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견본주택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에 마련된다.



택지까지 장 ‘활기’ 대 마련해요

이어온 분양시장이 대단지 공급이
급이 뚝 끊겼던 서울을 비롯해 2기
도시 대장지구 내에서 새 아파트가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특히 설
편의시설 차별화로 수요자를 유인
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용된 단지도 선보인다. 한 전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단순한 계
단지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양이 본격화된 현장에 관심을 갖는



1.9만 가구 대장지구 첫 분양... 오정역 호재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DL이앤씨

총 1640가구... 2026년 개통목표 S-BRT 공사중

DL이앤씨는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1만9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내 첫 분양 사업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A-5블록 952가구, A-6블록 68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099가구(A-5블록 638가구, A-6블록 461가구)가 5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다. 전용 46㎡는 227가구, 전용 55㎡는 872가구다. 단지가 들어설 대장지구에는 S-BRT(고급형 간선 급행버스체계)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S-BRT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입주 전 개통이 완료될 예정이다. 단지는 바로 앞 대장~홍대선(2031년 개통 예정) 오정역(가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다. 대장~홍대선 개통 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소요시간은 약 20분으로 단축된다. 인근으로 오정일반산단과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단, 제1·2첨단산단(예정), 계양산단(예정)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제1첨단산단(예정)에는 SK이노베이션이 약 1조원을 투자하는 SK그린테크노 캠퍼스와 DN솔루션즈가 약 24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기술연구소가 들어설 계획이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전 가구에 e편한세상의 혁신설계인 ‘C2 하우스’를 적용하고 펜트리(전용 55㎡)와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도를 높여줄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두 블록 모두 피트니스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등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당리역 역세권에 도시철도망까지 ‘사통팔달’

더샵 당리센트리체 포스코이앤씨

최고 29층 8개동 821가구... 초·중·고·대 인접

포스코이앤씨는 부산에서 ‘더샵 당리센트리체’를 선보인다. 더샵당리센트리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일원에 들어선다. 사하구에서 더샵 브랜드는 더샵 당리센트리체가 처음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2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35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124가구 ▲73㎡B 121가구 ▲84㎡C 112가구 ▲84㎡D 1가구다.

단지는 부산1호선 당리역 역세권 입지에 위치한다. 대터널과 낙동대로, 을숙도대교 등을 통해 시내외 어디든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부산시 도시철도망 확충계획에 따라 사상~하단선(2026년 개통 예정), 하단~녹산선(2029년 개통 예정),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2029년 개통 예정) 등이 개통하면 향후 교통환경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낙동초를 도보로 통학 가능하며, 인근으로 당리중, 사하중, 부산여고, 건국고, 부산일과학교, 동아대 등 다수의 학교가 모여있다. 이와 함께 당리시장과 하단오일상설시장, CGV, 사하구청 등이 인접했다. 더샵 당리센트리체는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다.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4베이 구조로 채광 및 통풍효과를 높였다. 내부에는 광폭 다이닝 공간과 동평형 대비



더 넓은 서비스면적으로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학습특화 공간인 에듀라운지, 북카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단지에는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가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에 마련된다.

개봉·양천구청역 ‘더블역세권’에 인프라 밀집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18년만의 고척동 1군 브랜드 ‘총 983세대 대단지’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단지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983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84㎡, 57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64세대 ▲59㎡B 353세대 ▲59㎡C 88세대 ▲59㎡D 20세대 ▲84㎡A 247세대 ▲

84㎡B-1 12세대 ▲84㎡B-2 11세대 ▲114㎡ 40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59㎡A 25세대 ▲59㎡B 335세대 ▲59㎡C 88세대 ▲59㎡D 4세대 ▲84㎡A 110세대 ▲84㎡B-1 10세대 ▲84㎡B-2 4세대가 일반분양 된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가 손잡고 서울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합작 단지다. 특히 고척동 일대에서 약 18년 만에 공급되는 1군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2호선 양천구청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반경 2km 이내에 아이파크몰, NC백화점, 코스트코, 고척시장, 고려대 구로병원, 구로세무서(이전 예정), 서울창업허브 구로(2029년 7월 준공 예정) 등 대



형 상업·의료·공공시설이 밀집해 있다. 고척초, 덕의초, 고척중, 경인중, 목동고, 고척고 등 다수의 명문 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중심의 평면 설계를 통해 일조 및 통풍을 극대화하였으며, 지상에 차량이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합리적 분양가’ 상업·업무시설, 학교 등 추진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제일건설

2028년 ‘의왕시청역’ 개통... 초·중·고 ‘학세권’

제일건설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을 선보인다. 단지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 등이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합리적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로 46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 각종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학교, 공원 등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단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예정)’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안양 인덕원에서 수원과 용인, 동탄을 지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또 인덕원역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 개발이 추진 중이다. 경수대로 및 의왕IC를 이용하면 과천봉담도 시화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행정타운 수해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기대할 수 있다. 의왕시청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상업용지를 비롯해 이마트, 롯데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과의 거리가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는 고천2 초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명문학교를 비롯해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콘텐츠·디바이스까지”… K-미디어, 글로벌 진격 신호탄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출범
삼성·LG·CJ 등 대표 기업 총집결
디바이스·플랫폼 전략 등 본격화

AI 더빙·광고 연계로 해외 공략
정부·민간, FAST 생태계 협력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미디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삼성전자·LG전자·CJ ENM·KBS·MBC·SBS·JTBC·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K-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며 K-미디어의 세계화를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3일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을 비롯해 국내 미디어·통신 대기업과 AI·플랫폼 기술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총 22개 기업·기관은 이날 다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미디어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는 K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과기정통부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는 개방형 민관 협의체로, 김성철 고려대 교수가 민간 의장을 맡았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민관 협업의 첫 걸음이다.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을 넘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의 융합이라는 4대 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미디어 전략이다. 힘을 모은 기업들은 AI 더빙, 해외 현지화, 글로벌 광고·커머스 연계, 국제 컨퍼런스 등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FAS

T 생태계의 국제적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FAS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AI 더빙을 통한 현지화 ▲광고·커머스 연계 수익모델 ▲국제 FAST 컨퍼런스 개최 등 후속 사업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얼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얼라이언스 운영사무국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현지 시청장벽 극복을 위한 AI 더빙 특화 K-미디어 현지화 지원, 해외 시청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커머스 연계 등 융

합 프로젝트 발굴, 국제 FAST 컨퍼런스 개최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K-FAST는 콘텐츠, 플랫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함께 한국 미디어 산업이 FAST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철 얼라이언스 민간 의장은 “K-FAST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선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와 전략적 연계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K-미디어의 입지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맞춤 AICC 플랫폼 구축

TCK와 AI·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KT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TCK)와 함께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맞춤형 인공지능 콘택트센터(AICC)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양사는 2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TCK AICC+(가칭)’ 공동 개발을 골자로 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TCK는 글로벌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전문 기업인 트랜스코스모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디지털 마케팅, 콘택트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산업별 AI 솔루션 공동 개발 ▲보안성 높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공동 마케팅 및 글로벌 세일즈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KT의 AICC 기술력과 TCK의 클라우드 역량을 접목해 BPO 시장 전반에 특화된 AICC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유심정보 침해 SKT… 정부와 공동대응에도 가입자 불안

고객 인증정보 담긴 HSS 해킹
IMSI·Ki 유출 정황, 도청·사기 우려
‘유심 보호서비스’ 실효성엔 의문

SK텔레콤의 핵심 서버가 해킹당한 사실이 알려진 후 SK텔레콤이 안내한 ‘유심(USIM)보호서비스’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며 이용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공격받은 장비는 통신 서비스의 설계와 인증을 맡는 홈가입자서버(HSS, Home Subscriber Server)로, 유심 복제와 2차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유심 정보만 유출됐다는 통신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과거 있었던 심 스와핑(SIM Swaping) 범죄까지 재조명 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를 통해 고유식별번호(IMSI)와 인증키값(Ki) 등이 유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뉴스1

SK텔레콤은 19일 내부감사에서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 이후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통보했고, 과기정통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의 악용 사례는 없다.

SK텔레콤은 “고객 고지를 통해 악

성코드로 인한 고객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 의심 상황을 공개한 이후 정확한 정보 유출 원인과 규모 및 항목 조사에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23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권장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타인이 고객의 유심 정보를 복제 또는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무료다. 22일 정보유출 사태 공지 후 하루만에 7만2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서비스가 해외에서의 로밍을 제한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유심 복제가 가능해 사각지대의 원천차단은 어렵고, 해

외 방문이 잦은 이용자들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가입과 해지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뉴스를 통해 해킹 사실을 접하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강지환(44)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유심을 무료로 변경해주는 등 더 강력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중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상태에서도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용자들이 대처할 방법은 사실 크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전날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해킹당 한 기기가 홈가입자서버(HSS)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용자들의 공포심리는 더욱 커졌다.

/김서현 기자



KT 엔터프라이즈부부장 안창용 부사장(왼쪽)과 TCK 타니 히로유키 대표가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KT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상업용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가 24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된다.

네이버클라우드에는하이퍼클로바X의 경량 모델3종 ▲하이퍼클로바X SEED 3B ▲하이퍼클로바X 씨드 1.5B ▲하이퍼클로바X 씨드 0.5B의 개발을 완료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로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는 해당 모델을 내려 받아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비즈니스 및 학술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공개하는 오픈소스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씨드는 연구용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기존 국내 기업들의 주요 모델과 달리 상업 목적으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나 라이선스 제한 등의 문제로 생성형 AI 도입을 망설였던 중·소규모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국내 AI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

LGU+ “네트워크 장애 예측부터 대응까지 자동화”

에릭슨과 ‘AI 네트워크 조치’ 시연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 활용
NWDAF로 과부하 실시간 예측

LG유플러스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에릭슨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네트워크 장애를 예측하는 기술을 시

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I/ML) 기반 네트워크 장애 예측 기술은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NWDAF)’의 핵심으로 꼽힌다.

NWDAF는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애를 예측하며, 필요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네트워크 자동화를 돕는 장비다.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3GPP의 표준기술장비이기도 하다.

LG유플러스와 에릭슨이 이번엔 시연한 기술도 기지국의 트래픽 혼잡 상황이 발생했을 때, NWDAF를 통해 네

트워크 슬라이스 별 과부하를 실시간으로 인지·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등 네트워크 품질을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조치 시행까지 결합될 경우 ‘인간 운영자’의 개입없이도 네트워크가 작동되는 자동운영 솔루션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서현 기자



인터파크 평점 9.4!

현실 캐릭터들의 집합소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오세요!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story | 예매처 interpark | 문의 02-332-4902

불안한 장세에 금값 ‘고공행진’ 투자자들, ETF·달러 사들인다

실물 금·ETF로 쏠리는 자금
금 관련 펀드 수익률도 급등
외화예금 5영업일 만에 40억↑
“지키는 투자” 자산 방어 확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광중씨(가명·55)는 최근 민간 업체인 A금거래소에서 1kg짜리 골드바(금괴) 10개를 샀다. 금액으로는 약 16억원이다. A씨는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는 금만 한 게 없다. 장기간 금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자산으로 20억원가량을 보유한 자영업자 B씨(40)는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 21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3시 45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428.39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03% 올랐다. 금값이 치솟고 있는 만큼 금 상품 투자의 적기라고 봤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금과 달러를 사들이는 경우가 잇따른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발생하면 돈 가치는 떨어진다. 그런데 실물자산인 금을 사두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도 늘었다.

23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3개월(1월 23일~4월 23일) 간 ‘ACE KRX금현물’의 수익률은 15.65%를 기록했으며, 4755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같은 기간 해당 ETF를 포함한 국내 금 관련 ETF 7개 평균인 약 854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을 찾은 시민이 골드바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최근 연일 급등하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도 수익률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시스

(합성H) 38.23%, TIGER 골드선물(H) 18.49%, KODEX 골드선물(H) 18.64%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격화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폭등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제 금시세는 전날보다 2.10% 하락한 온스당 3308.4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에는 장중 온스당 3504.12달러까지 오르던 3500달러를 넘겨 사상최대치를 돌파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은 금값이 내년 중반까지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놨다. JP모건은 “금에 대한 지속적인 강한 투자가 있고 중앙은행의 금 수요도 계속되고 있다”며 “금값이 올해 안에 평균 3675달러를 넘긴 뒤 2026년 2분기에 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증권사 영업점 A센터장은 “자산가들은 재산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고액 자산가들과 상담하는 은행 프라이빗뱅크(PB)들은 최근 달러가치가 싸질 때마다 달러를 사려는 주문이 늘었다고 전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달러예금 잔액은 607억4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의 580억2000만달러보다 4.7% 증가한 수준이다.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지난 10일 563억5천만달러까지 더 줄었다가, 이후 17일까지 불과 5거래일 만에 40억 달러 넘게 다시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고객들이 단기적인 환율 등락에 따라 외화예금을 적극적으로 사고파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전력변환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

코스닥 CEO 인터뷰

강 찬 호 이지트로닉스 대표

전기차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핵심 부품인 전력변환장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 등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제어하는 이 기술을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전력전자 전문 기업 이지트로닉스다.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버터, DCDC 컨버터, 온보드 차저(OBC)뿐 아니라 급속·완속 충전기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강찬호 이지트로닉스 대표(사진)는 전력변환장치를 ‘사람의 심장처럼, 전자 기기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수소차 부품 국산화
북미·중국 생산거점 확보 박차
UAM·ESS까지 산업 확장 시동
전력 기술로 지속가능성 주도

회사는통신장비용 전력장치에서 출발했지만, 전기차 산업의 부상과 함께 빠르게 방향을 전환했다. 강 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도 기술 중심의 유연한 조직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부터 전기차, 에너지 인프라,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의 기술 확장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

이지트로닉스는 올해 초 중국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전기차 부품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지난 2023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공급망박람회’에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강 대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초기부터 기술과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미 시장 공략도 본격화됐다. 이지트로닉스는 지난해 4월 미국에 생산 법



인을 설립하고, 400kW급 초급속 충전기와 두대 연계형 700kW급 충전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통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 공급 기반도 마련했다.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 부품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차, 농기계,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전력변환 기술을 확장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각 산업 별로 요구되는 기술 사양은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인프라분야로의 진출도 예고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DC 배전,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전기차에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강 대표는 “전력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트로닉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축은 인재다. 회사는 팀워크 중심의 문화를 지향하며, 젊은 인재들이 기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강 대표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조직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지트로닉스는 올해부터 투자자 대상 홍보(IR) 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소 소극적이었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는 “단순한 기업 소개를 넘어 이지트로닉스가 보유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비전과 중장기 사업 계획, 실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략 등 투자자들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

“법은 무죄, 당국은 배상”... 디스커버리 펀드, 6년 넘는 책임공방

분조위 “설명의무 위반” 판단
기업銀 최대 80% 배상 권고
대법 “기망 없다” 무죄 확정

디스커버리 펀드를 둘러싼 사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펀드 환매가 중단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 보호와 금융회사 책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올해 1월 대법원은 해당 펀드를 운용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



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

죄를 확정하 바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가 운용한 상품으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신영증권 등에서 판매됐다.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미국 P2P 대출 채권에 투자되며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장 전 대표는 투자자들을 기망해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에 ‘위험등급 매우 높음’으로 명시됐고, 수익률이 8%에 이른 시점도 있어, 전반적 기초자산의 부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판매사 책임을 물었다. 분조위는 이날 대표사례 2건을 심의해 기업은행은 80%, 신영증권은 59%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두 회사 모두 펀드 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리스크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영증권은 “6개월 단위 확정금리 4.4% 상품”이라 설명해 투자자가 오해할 소지를 만든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2021년 첫 조정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기초자산의 부실 정황을 추가 확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운용사가 연체이자를 신규 대출로 계상하거나 부실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한 구조가 문제였고, 실제 디스커버리 측은 해당 자산을 상각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SEC 등 해외 당국에서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회신이 오면서, 계약 당시의 ‘부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긴 어려웠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다. 결국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은 인정

됐다.

기업은행은 투자자 성향이 ‘위험중립형’이었던 일반고객에게 높은 위험등급 상품을 권유하고, 사후에 부적합 확인서를 징구했다. 신영증권도 법인고객의 투자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확정금리 상품처럼 오도했다. 분조위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배상비율(30~40%)에 판매사 책임에 따른 공통가중비율(기업은행 30%, 신영증권 25%)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분조위 조정은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남은 분쟁조정 신청 건(42건)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2021년 조정으로 합의된 건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의 ‘추가 배상’을 기대한다는 분조위 내부 의견도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스마트팜’ 중동 사막에 뿌리 농심, 사우디에 스마트온실 착공

리야드 국립농업연구센터 내 조성
수직농장·유리온실 두가지 모델
토마토·오이 등 작물 재배 본격화
까르푸 등 유통망 통해 현지 판매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진출 박차

농심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방울토마토와 오이 등을 재배한다. 향후 사우디를 거점으로 중동 현지 시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농심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립농업연구센터 내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과 알무샤이티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차관 참석 하에 K-스마트팜 중동 수출 거점 조성을 위한 시범온실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 2024년 7월 농심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체결한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구축 및 운영해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중동 현지 진출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다. 농심은 중소기업 3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 기업을 대표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농심 스마트팜은 약 2000㎡ 규모로 올해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첨단 농업용 로봇, 환경제어 솔루션 등 다양한 K-스마트팜 기술을 선보인다.



농심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립농업연구센터에서 K-스마트팜 중동 수출 거점 조성을 위한 시범온실 착공식을 진행했다. (왼쪽 2번째부터)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알 압둘라티프 차관보, 알 무샤이티 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문병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 대리,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황청용 농심 부사장. /농심

농심은 이번 스마트팜을 ‘수직농장’과 ‘유리온실’ 두 가지 모델로 조성한다. 수직농장에서는 프릴드아이스·케일과 같은 엽채류를, 유리온실에서는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을 재배한다. 단맛을 선호하는 중동 현지인 입맛에 맞춰 쓴맛이 덜한 엽채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과채류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농심이 생산한 작물은 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의 기존 유통망을 통해 우선 판매하고, 향후 현지 유통매장인 까르푸, 루루 하이퍼마켓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눈(Noon) 등에도 입점할 계획이다.

농심은 이번 사업으로 중동 현지에서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현지 맞춤형 스마트팜 패키지를 안

정적으로 운영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작물 연구와 가공, 유통판매 등 스마트팜 연관 산업을 모은 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농심은 2022년 오만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처음으로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을 내디뎠다. 이후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스마트팜 수출 MOU를 맺어온 농심은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이날 착공식에 이르게 됐다.

농심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우디 현지에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사우디 스마트팜 착공을 계기로, 농심 스마트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T&G가 지난 22일 유라시아 시장의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방경만 KT&G 사장(왼쪽에서 5번째), 술탄가지예프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 주지사(왼쪽에서 6번째), 조태익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왼쪽에서 7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KT&G

KT&G,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확보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
글로벌 생산체제 기틀 마련

KT&G가 유라시아 시장의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KT&G는 전날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에 위치한 현지 공장에서 방경만 KT&G 사장과 술탄가지예프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 주지사, 조태익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 등 10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KT&G 카자흐스탄 신공장은 5만 2000㎡의 연면적에 생산 설비 3기가 설치돼 연간 45억 개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최근 성장 중인 유럽과 CIS(독립국가연합) 등 유라시아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수출 전초기지이자 핵심 생산거점이 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신공장 건립은 KT&G가 지난 2023년 1월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자본적 지출(CAPEX) 투자 일환이다. KT&G는 해외 직접사업 확대 등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7년 글로벌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KT&G는 이번 신공장 완공을 통해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신원선 기자

‘진로’ 출시 6주년

1초당 12병 팔리는 ‘국민소주’ 리뉴얼·협업 등 MZ소통 강화

제로슈거 소주 2년 연속 판매 1위
브랜드별 메시지·역할로 경쟁력 ↑

하이트진로는 올해 출시 6주년을 맞은 ‘진로’가 젊고 트렌디한 소통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진로는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판매 23억 병을 돌파(23일 기준), 1초에 12병 이상 판매되는 등 제로슈거 소주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제로슈거 소주 부문 2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4년 누적 판매량 기준 진로는 2위 브랜드와 약 1.5배의 판매 격차를 내며 제로슈거 소주 판매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진로는 2024년 한해 동안 국내 가정 시장 유통채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모든 채널에서 각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제외한 가정채널은 전체 소주 판매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해당 부문에서 진로는 2위 브랜드와 약 1.6배의 판매 격차를 내며 압도적 1위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출시 5년 만의 라벨 디자인 리뉴얼, ▲진로 오리진, 크리스마스 에디션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한정 제품 출시, ▲KITH, 안티 소셜 소셜 클럽, 미사 등 이종 업계와 다양한 협업 활동으로 젊은층과 소통에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진로’, ‘진로골드’, ‘참이슬’ 각각 브랜드별 명확한 메시지와 역할을 부여하여 개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로는 소주 본연의 초깡콤한 맛 콘셉트를 지속하면서 다양한 이종업계와의 협업 등 젊고 트렌디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진로골드는 15.5도의 부드러운 맛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강화해 저도수 트렌드를 리드, 참이슬은 전국구 대세감을 강화해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아워홈, 인천공항서 한식의 가치 알린다

테이스티 아워홈 그라운드 오픈
전세계 인기 메뉴 한국식 재해석

아워홈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테이스티 아워홈 그라운드(TAST YOURHOME GROUND)’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테이스티 아워홈 그라운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1층 교통센터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 935평(3090㎡)에 645석 규모, 5개 매장으로 조성됐다.

한식, 중식, 베트남식 등 다양한 국가의 요리와 카페&베이커리, 햄버거 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까지 다채로운 맛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객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워홈은 ‘익숙하지만 새롭고 한국적이면서 다채로운 맛’을 메뉴 콘셉트로 삼고 전세계 인기 메뉴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공간 디자인 콘셉트 역시 ‘한국식 광장’을 주제로 연(鰲), 기반(基壇) 등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을 활용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했다.

테이스티 아워홈 그라운드에는 ▲중식 다이닝 ‘싱카이’ ▲베트남 요리 전문점 ‘PHO’ ▲트렌디 K-분식 ‘별미분식’ ▲유리피온 델리샵 ‘밀리언즈’ ▲글로벌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버거킹’까지 5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이 중 싱카이와 PHO, 별미분식은 아워홈이 직접 운영한다. /신원선기자

롯데百, 국내 최초 프리미엄 사케 선택

‘이와 5 아쌍블라주 5’ 에디션

롯데백화점이 프리미엄 사케 ‘이와 5 아쌍블라주 5’ 에디션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5’는 사케의 전통적인 단일 양조 방식이 아닌, 여러 종류의 사케를 조합하는 블렌딩 기법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케다. 프랑스 삼페인 ‘돔페리농’에서 지난 1990년부터 28년간 수석 와인메이커로 활동한 리샤르 지오프루아가 만들었으며, 이름의 ‘5’는 오감과 양조에 사용된 다섯 가지 효모를 의미한다.

롯데백화점은 이와 5라인업인 ‘이와 5 아쌍블라주 5 에디션’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일본 도야마현산 야마다니



롯데백화점 본점 와인 매장에서 브랜드 관계자가 관련 상품을 들고 있다. /롯데백화점

시키, 오마치 등 주조용 쌀에 와인 효모 5종을 첨가하고 14개월간 병숙성 과정을 거친 것이 특징이다. ‘아쌍블라주’는 프랑스어로 조합 또는 혼합을 뜻하는 용어로, 라즈베리·자스민·소나무 향이 어우러진 사케를 의미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온 ‘내일ON다’ 적용 상품 늘린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내일ON다’ 배송 서비스 적용 상품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내일ON다는 롯데온이 지난 2023년 선보인 서비스로, 고객이 오늘 주문하면 다음 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빠른 배송 시스템이다.

롯데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일ON다 서비스 수요 분석 결과, 커피·생수·음료, 화장품·향수, 유아동 의류 등의 카테고리가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명품, 운동화, 건강식품 등이 인기 품목으로 꼽혔다.

이에 롯데온은 앞으로도 내일ON다 적용 상품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롯데온은 현재도 전체 상품의 절반 가량이 익일 배송 서비스 내일ON다를 통해 배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비 상품군을 2배 이상 확대한 결과다. 실제 롯데온의 내일ON다 적용 품목은 론칭 초반 1만 개 수준에서 지난해 기준 23만 개까지 늘었다.

롯데온 류승민 공급망 관리팀 책임은 “앞으로도 빠른 배송으로 고객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매출 1조 돌파… 영업이익 120% ‘썰렁’

1분기 실적발표

CMO 등 글로벌 시장 중형무진
수주활동·생산능력 확대 집중
“고품질 바이오의약품 지속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연간 매출 5조원 시대를 열기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았다.

2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1조2983억원, 영업이익 4867억원을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1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19.92%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37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38% 커졌다.

또 1분기 연결기준 자산 17조4370억원, 자본 11조2801억원, 부채 6조1569억원 등을 기록해 재무 상태도 부채비율 54.6%, 차입금 비율 11.9% 등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매출 목표로 전년 대비 20~25% 성장률을 제시해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수



‘제2바이오캠퍼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주 활동과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에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747억원 규모의 초대형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38%에 해당하는 성과다. 지난 2024년 연간 수주 실적은 총 5조4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앞서 2022년 1조7835억원, 2023년 3조5009억원 등으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 비중은 유럽 소재 고객사

65.2%, 미국 소재 고객사 25.8%, 기타 지역 6.0%, 국내 3.0%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핵심 고객사 범위를 글로벌 상위 20위에서 40위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 뉴저지, 보스턴 등에 이어 일본 및 아시아 중요 지역에서도 영업 활동을 확대한다. 주요 고객사와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이달 5공장 본격 가동과 함께 6~8공장 증설 계획으로

새로운 청사진을 펼친다.

이번 5공장 완공은 지난 2023년 4월 착공한 지 25개월만이다.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단축된 것으로, 동일한 18만 리터 규모의 3공장 완공이 약 35개월 걸린 데 비해 약 30% 빨라졌다. 단순 생산 역량뿐 아니라 생산 시설 확충 속도에서도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 초격차를 이뤄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총 생산능력을 78만4000리터로 확보했고, 오는 2032년까지 5공장과 동일한 규모의 공장 3개를 추가로 건설해 8공장까지 완공 시 총 생산능력은 132만4000리터에 이르게 된다.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다. 항체·약물접합체(ADC) 전용 생산시설이 1분기가동을 시작했고, 최근 삼성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유망 바이오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는 생생형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 기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비롯한 중추 신경계 등으로 다양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바이오시밀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K 바이오’ 역량을 강화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 4006억원, 영업이익 128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에톨로체’,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에피즈텍’ 등의 유럽 판매가 주효했고, 미국에서의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마일스톤 효과 없이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기존 종양괴사인자 알파(TNF- α) 억제제 3종(에톨로체, 레마로체, 아달로체)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에피즈텍)까지 보유함으로써 자가면역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공략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고 적기 제품 출시 및 판매를 통해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를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모더나 mRNA 특허 장벽 허물어 “집안 냄새 고민, 페브리즈로 해결하세요”

mRNA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
국내 백신기업 특허 리스크 완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기업 모더나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백신 주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무효 심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 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모더나의 특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을 포함한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특허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인정받아 과도하게 특허 독점권을 획득함으로써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에선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이 모더나와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중이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발 앞서 특허 장벽을 허물며 자체 기술 확보 노력에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

후 mRNA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까지 완화함으로써,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2월 ‘GBP560’의 글로벌 1/2상 임상시험에 착수하며 국내 기업을 선도하는 mRNA 백신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402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이번 임상은 ‘GBP560’ 접종 후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후 내년 중간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돼 처음 상용화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은 유전자 염기서열을 활용해 기존 플랫폼 대비 신속한 대량생산 체제 구축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국P&G 간편 사용으로 빠른 탈취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가벼운 옷차림과 외출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미세먼지와 일교차로 인해 환기를 자주하기 어려운 날이 많아지면서,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냄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다.

23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한국 피앤지는 다양한 냄새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탈취 브랜드로 페브리즈를 선보인다.

대표 제품인 ‘페브리즈’는 분사형 섬유 탈취제로, 빠른 탈취가 필요한 경우에 옷이나 침구에 간편하게 뿌리면 된다. 페브리즈만의 탈취 기술은 3단계로 설계돼 나쁜 냄새를 중화하고, 가두고, 끌어낸다. 냄새를 단순히 덮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냄새 원인을 없애는 데 중점을 뒀다.

‘다우니X페브리즈’는 탈취 기능에 향기까지 더해진 제품이다. 냄새로 인



‘페브리즈’ 탈취 제품군

/한국P&G

한 찻집함을 해결하면서 최대 48시간 향을 전달한다.

‘페브리즈 비치형’ 2종은 방향제 형태로 간편한 사용법이 장점이다. 집안 곳곳 놓기만 하면 교체 없이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화장실용은 탈취 성분을 기존 제품 대비 2배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효과를 갖췄다.

페브리즈 브랜드 관계자는 “용도와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생활 속 냄새 고민은 털어내고 기분 좋은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쏘시오그룹,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 정책 실천

“매년 현금·주식 등 배당 노력”

동아쏘시오그룹이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 실천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23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전문의약품 전문기업 동아에스티의 이대우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김학준 사외이사가 장내 매수에 나섰다.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는 김민영 사장이 1000주 넘게 추가 매입했고, 고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이남용 사업부장도 자사주를 매입했다.

지난 달에는 원료의약품 전문회사에

스티팜의 김이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약 7600만원 규모의 자사주 1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다양한 정책으로 주주들과 기업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주주들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3월 열린 ‘제7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와 관련된 정관 변경의 건을 다뤘다.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관변경 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결산

배당, 분기배당 모두에서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각각 개최한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통과시켜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매년 현금 및 주식 배당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지씨플루’ 594만 도즈 수출

태국 국가입찰 수주… GPO 등 공급

GC녹십자는 독감백신 ‘지씨플루(GCFLU)’가 태국 국영 제약사인 GPO와 질병통제국(DDC)의 입찰 및 민간 시장 포함 총 594만 도즈의 물량을 공급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태국으로 진출한 이래 역대 최대 수주 규모다.

태국은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독감백신 접종 지침을 모두 적용 받는

국가다. 이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독감백신 공급이 필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이번 입찰에서 GC녹십자는 GPO의 남, 북반구 입찰 및 질병통제국을 포함한 태국 정부의 국가 입찰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수출 지원 및 국가출하승인 일정 단축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해외 수출 계약 체결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현대해상

아파본 사람들은 걱정을 달고 살죠

먹어도 되는 영양제인지,
해도 되는 운동인지,
음식은 짭지 단지,

그리고 보험은 가입될지...

그래서 현대해상이 합니다
보험만큼은 걱정 없게!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



치료이력



입원이력



수술이력



진단이력

간편심사 질문만 답하면 **유병자도 90세까지 가입 가능**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인수 지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 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40953호(2025.01.24~2026.01.23)



NH농협금융지주, '2025 고객전략포럼'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본사 대강당에서 '2025 농협금융 고객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농협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강연을 듣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희망의 집짓기' 활동

한국씨티은행은 한국해비타트와 '씨티 임직원 희망의 집짓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활동은 씨티은행 임직원과 가족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씨티은행



소공연-한결원, 소상공인 지속가능 사업 발굴·추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에서 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은 소상공인 회원 정보 공유 및 가입 추천을 통한 소상공인 조직화와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최동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인하대-셀트리온, 바이오의약품 특화 인재 양성

인하대학교는 최근 셀트리온과 바이오의약품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정을 통해 바이오의약 기반 산학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인하대

부음

▲김상범씨 별세, 조우현(비엔그룹 대표이사)씨 빙부상 = 22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51-519-2114
▲마경락(향년 79)씨 별세, 박두생씨 남편상, 성훈·정민(한국관광공사 홍보팀장)·정희씨 부친상, 김진아씨 시부상, 조동혁씨 장인상 = 22일, 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401호, 발인 25일 오전 8시. 053-958-9000
▲오세연씨 별세, 김영택(수원서부경찰서 형사와 강력 5팀장)씨 빙부상 = 23일, 한독병원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31-235-5321

LG전자, TV·냉장고 등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석권

IF·레드닷 어워드 대거 수상 공감지능 기반 경쟁력 입증

LG전자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과 최고혁신상을 포함해 총 35개의 상을 받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iF 디자인 어워드,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LG전자는 앞서 열린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36개 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거듭 입증했다.

23일 LG전자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모델명 T7T4)'가 최고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리모컨 조작만으로 '블랙 스크린'과 '투명 스크린'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과 최고혁신상을 포함해 총 35개 상을 수상했다. 위 사진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T'. /LG전자

블랙 스크린 모드에서는 77형 4K(3840×2160) 해상도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투명 스크린 모드에서는 화면 뒤 공간까지 볼 수 있어 증강현실과 같은 몰입형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이 제품은 4K·144Hz 영상을 손실 없이 무선으로 전송하는

'무선 AV 전송 솔루션' 기술을 적용해 실내 공간을 더욱 깔끔하게 연출하고 시청 몰입감을 한층 높인다. 기존 TV 본체에 연결했던 콘솔기기, 셋톱박스 등 주변기기는 별도의 '제로 커넥트 박스'에 연결하면 된다.

최고혁신상은 '이동형 AI 홈 허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히어로즈' 4人 선정

전대헌씨 등 산불 현장에서 인명 구조

포스코청암재단이 위기 순간에도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역대 최악의 경북 산불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시민 4명을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971년 포스코청암재단을 설립해 우수 인재 양성과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공동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포스코히어로즈'를 제정하여 개인의 위급상황 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타인과 사회를 위해 나선 시민에게 '포스코히어로즈'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포스코히어로즈'는 총 102명에



23일 포스코청암재단이 경북소방본부에서 경북 산불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포스코히어로즈 4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경북소방본부 박성열 본부장, 수기안 토 씨, 전대헌 씨, 김옥화 씨, 김형중 씨가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포스코홀딩스

달한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기안토(31) 씨는 산불이 영덕 인근마을로 번지자 이웃집을 돌며 잠들어 있던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업고 300m 떨어진 방파제로 피신시켰다.

같은 영덕지역의 전대헌(52) 씨는 불길을 피해 방파제로 피신한 34명

의 주민들을 자신의 선박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다.

김옥화(56) 씨와 김형중(48) 씨도 긴급한 화재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자신의 차량으로 주민들의 도피를 돕는 등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번에 포스코히어로즈에 선정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주호 장관 “의학교육위원회 설치”

의과대학 학생 간담회 참석 “정부-의료계 신뢰회복 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학교육 정책 결정 시 의대생을 포함한 의학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22일) 이 부총리는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의과대학 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의학교육 정상화와 학생 교육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24·25학번 동시 교육에 따른 현장 혼란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의과대학 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늘이 자리가 학생 여러분과 교육부는 물론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

전력거래소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전력거래소는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력거래소는 중소기업과 공정거래 문화조성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에서 전년대비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EV 스마트충전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등 전력신사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기울였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초 '최우수' 달성은 모든 임직원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관 실정에 맞고 시의성 있는 동반성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앙대

내달 입학설명회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5월 24일 창원을 시작으로 광주·부산·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 'CAU WAVE CINEMA TOUR'를 개최한다.

23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창원(5월24일) ▲광주(5월30일) ▲부산(5월31일) ▲성남(6월7일) ▲대구(6월14일) ▲고양(6월14일) ▲대전(6월21일) ▲제주(6월21일) ▲인천(6월28일) ▲서울(노원-6월28일) ▲서울(잠실-7월27일) ▲서울(본교-8월30일) 등 전국 10개 도시, 11개 롯데시네마 지점에서 진행된다.

설명회는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며,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버예약 시스템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트럼프 리스크’, 포폴리즘으로 막을 수 없다



김 문 호 의
단 상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할 것 같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는 데 대한 기업들의 절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되자 ‘집중 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다.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다. 이른바 ‘로란봉투법’ 입법 움직임도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취지와 명분이 아

무리 좋아도 지나친 규제가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든 내수와 고용 시장에 한파를 몰고 올 게 뻔하다. “상법개정안 등과 맞물린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deeply discounted)’에 돌입했다”라는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트의 분석이 섬뜩하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하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 “중국 관세 보복조치, 중국에 좋지 않아” 등등 경고를 서슴지 않는다. 세상은 ‘폭주 기관차’ 앞에서 불합리성을 따질 여유가 없다. 대만 정부는 ‘실리콘 방패’를 내려놨다. 미국에서 2나노 칩 생산 투자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액화천연가스 등을 더 많이 구매기로 했다.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눈엣가시로 여기는 마약사범의 범죄인 인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의 테무와 쉬안을 겨냥해 19%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을 향한 유화책이다. 국내 기업중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총액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종 규제에 기업

을 옥죄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번 집을 떠난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탈중국’ 저지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은 20곳에 그쳤다. 2020년 이후 가장 적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유턴기업은 23곳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적은 수준이다. 미국의 유턴기업은 2021년 1800곳이 넘었다. 일본도 유턴기업이 매년 600~700곳에 달한다.

화(禍)는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한국경제가 그 짝이다. 수출 부진과 내수 불황,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3월 고용률은 62.5%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9.3%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려면 기업들을 불러들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하는 일이 등 떠미는 모양새다. 개혁을 이유로 기업들을 오히려 해외로 내몰고 고용 시장에 한파를 불러온다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성장은 요원할 것이다. 아직도 정치권만 판 세상에 살고 있다.

/자본시장부장 kmh@metroseoul.co.kr

같은 상품권, 다른 가격



김 지 수 첩
(금융부)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 5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지난 2020년 발행량은 2조5000억원 수준이었는데, 5년 새 두 배가 넘게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 각종 ‘페이앱’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상품권으로 발급된다. 액면가보다 싼 가격

에 구매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해 세금을 투입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 하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상품권의 취급 형태에 따라 할인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상품권에 10%의 할인을 상시 제공한다. 설·추석 등 명절에는 할인율이 15%까지 오른다. 구매액의 약 10~15%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한다. 그와 비교해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5%로 고정됐다. 디지털상품권에 적용되는 각종 이벤트까지 고려하면, 같은 값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최대 30%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부정 유통 가능성이 큰 지류상품

권의 유통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상품권에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상권 이용률이 높은 고령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주고 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다.

특히나 중기부는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해 한달 동안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이 1조 267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8393억원은 디지털상품권이었던다. 이미 수요의 80% 이상이 디지털상품권으로 이동했는 데도, 지류상품권에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역차별’을 지속중인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디지털화폐’를 테스트하면서 특정 품목의 구매를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누리상품권에도 ‘세금 투입’을 납득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asj1231@

오늘의 운세4월 24일 (음 3월 27일)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외위로 묶여있던 어려운 일이 풀린다. 48년생 증권도 계획 없는 투자는 손실로 이어진다. 60년생 가족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72년생 마음에서 마음인 심심상인(心心相印)이다. 84년생 돈 자랑하다 체면 손상된다.

소

37년생 옛 은인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49년생 살가운 권모술수를 조심해야 할 듯. 61년생 이성을 바꾸어가며 만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73년생 더위는 더위로 해결해보자. 85년생 분수를 알아야 분수를 지킬 것 아닌가.

호랑이

38년생 직장에서 도덕심은 나를 오래도록 이끌어준다. 50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62년생 양다리 걸치지 마라. 74년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다 쓸모가 있다는 것. 86년생 진정한 부자는 베풀면서 겸손해한다.

토끼

39년생 삼재팔난이라 했으니 먼저 배려하라. 51년생 종일 시장을 다니며 물건을 구경한다. 63년생 너무 계산하다가 늘 좋은 사람 놓친다. 75년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87년생 시대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용

40년생 옷이 남루하여도 슬퍼말자. 52년생 돈도 능력이니 부지런히 벌여라. 64년생 태풍 뒤에는 언제나 하늘은 맑아진다. 76년생 간사 한자에 모함해 걸리지 않게 신중하게. 88년생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격려하여 기쁘다.

뱀

41년생 본심이 밝고 맑다면 행복한 결과가 온다. 53년생 약속이나 기한이 늦어져도 다투지 마라. 65년생 자격증 시험합격 소식. 77년생 인간사(人間事)마(塞翁之馬). 89년생 집이 없어도 화목함이 있으니 다시 일으키게 된다.

말

42년생 이리저리 어지럽게 출어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54년생 회로애락은 마음이 짐에서 좌지우지. 66년생 남의 말에 간섭하지 마라. 78년생 마음이 어진 사람의 연동은 이익이 된다. 90년생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한다.

양

43년생 죽음의 허무함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도 있게 마련. 55년생 연인의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67년생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이 간섭이라 하지만. 79년생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이 없다. 91년생 기술력은 좋으나 세상 물정은 모른다.

원숭이

44년생 비뿔 때 간널목에서 차량 주의해야. 56년생 조부모님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듯. 68년생 제 허물은 생각 않고 남의 잘못만 고집어낸다. 80년생 뜻 맞는 사람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다. 92년생 최소한 자기 주변에 인색하지 말자.

닭

45년생 잘난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57년생 때로는 안경을 벗어보라. 69년생 영업에서 실적이 없으면 늘 피곤한 것이다. 81년생 주택 집에 소나무를 심고 동반 성장하자. 93년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 날.

개

46년생 작은 부주의로 일을 그르치니 잘 살펴라. 58년생 남의 탓하지 말고 현명하게. 70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82년생 약한 자가 강자에게 달갈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다. 94년생 역마의 기운으로 멀리 있는 길 떠나 객지 밥을 먹는다.

돼지

47년생 과시에 치중하면 복득을 깎는다. 59년생 학력위조는 결과가 시끄럽다. 71년생 말이 많다 보니 내면이 빈곤. 83년생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다. 95년생 동서고금 돈 자랑하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고 하는 글귀를 보라.

김상회의四季

산이 높으면



높은 산은 오르기도 힘들지만, 그 정상에 오르면 고도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당연히 느낌과 감상도 차원이 다르다. 당연한 이치이다. 정상은 정상대로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높고 낮음이 극명하니 웅장하고 아름답기가 남다르다. 대부분 사람은 높은 산만 보고 골은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이는 인간사에도 그러해서 사람이 성공하면 정상에 올랐다면 성공한 현재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시련은 그저 미화된 무용담처럼 여기며 가볍게 넘긴다. 그러나 우리는 솔하게 본다.

나름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모습,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생각해본다. 만약 그들이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한 개인의 망신살 정도에서 끝날 일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 일이 온 세상에 가십거리가 된다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다. “죽을 용기로 살지, 모욕을 견디기 어려웠나...” 작금의 여러 비극을 보자면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 ‘노인과 바다’나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의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도 작가적 성공을 거두었어도 스스로 무력감과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생을 포기했다.

사업가 연예인 정치인 중에도 젊은 시절에 일찍 이름을 날린 경우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며 방황의 늪에 빠지거나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다. 사주상 조후가 원만하지 않고 한 기운으로 몰려있을 경우를 그렇게 본다. 영웅적 삶을 사는 경우의 사주가 보통 그러하다. 잘 풀리면 영웅이요, 안 풀리면 굴곡이 심한 삶이다. 평범한 가운데는 운기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에 비견되는 고산 심곡을 반기지 않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5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로봇이 약 뿌리고, 수확물 운반까지 농진청, ‘농업로봇’ 상용화 나선다

‘로봇 연계’ 통합관리프로그램 개발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나서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에 적용
“농촌, 1농장-1로봇 시대 열릴 것”

농진청이 농작업 단계별로 ‘로봇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 인력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까지 도모한다. 또 농업로봇의 농가 보급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관련 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농업·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로봇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1월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해 2029년까지 스마트농업 기술과 장비 도입 온실 면적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농진청은 온실에 스마트농업



이승돈 농진청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팜 무인화를 위한 로봇 기반 통합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농업로봇의 상용화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기술 활용을 위한 로봇(방제, 운반, 점검) 3종을 개발한 바 있다. 또 이들 로봇을 연계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제어하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통합관리프로그램은 농업인이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여러 대의 로봇을 연결해 동시에 관리하고 로봇 작업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주요 기능은 로봇 관리, 작물 관리, 디지털영농 관리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프로그램을 우선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에 적용했다.

기술 적용 결과, 방제 로봇은 작업 지시부터 작업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완전 무인화 했다. 인력으로 할 때보

다 작업시간이 40%가량 줄었으며, 완전 무인화로 미립 방제를 할 수 있어 방제 효과는 15% 이상 높아졌다.

운반 로봇의 경우 인공지능 및 거리 측정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 진행 속도에 맞춰 뒤를 따라다니며 수확 작업을 도와준다. 또 실시간으로 수확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일일이 무게를 달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가까운 미래, 농촌에는 ‘1농장-1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며, 로봇을 활용한 농작업 단계별 자동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코트라, 동남아 3개국서 ‘수출로드쇼’ 개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서
의료기기·의약품 바이어 상담 지원

정부가 동남아 3개국에서 수출로드쇼를 개최하고 의료시장 공략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와 정책에 대응해 업계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의료품수출입협회는 21일~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

핀 마닐라에서 바이오메디컬 수출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의약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의료관광 회복과 함께 바이오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필리핀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억8000만명의 인구 중 중산층 소득 증가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육성과 보건 시스템 혁신개혁을 추진하는 등 최근 한국 의약기업과 클리닉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수출로드쇼에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피부 및 미용제품 ▲정형외과 수술 및 치료기기 수출 강소기업 20개사가 참여, 현지에서 100개 바이어와 직접 만나 총 35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유통업 AI 활용률 3%… AI 확산 속도낸다

산업부, ‘유통-AI 얼라이언스’ 출범

유통산업의 AI(인공지능)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AI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얼라이언스 출범은 산업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의 후속조치다.

국내 유통산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글로벌 플랫폼 진출 확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유통산업 AI 활용률은 현재 3%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생태계 조성이 우선 요구된다.

얼라이언스에는 유통기업, AI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 4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기술 전담반 ▲스타트업 육성반 ▲데이터 활용반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AI기술기업과 유통기업이 협업해 실제 유통현장에서 적용가능한 AI솔루션을 개발·검증해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유통·물류분야 AI전문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얼라이언스는 10대 유통 AI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매년 30개 유통 AI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유통 상품 표준데이터 100만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미아동 일대, 북한산 조망 1200세대 단지로

서울시, 미아동 345-1 신통기획 확정
저층주거지 개선, 생활기반시설 확보

북한산을 배경으로 삼양사거리역세권과 솔샘로를 따라 자리한 미아동 345-1 일대가 25층 내외, 12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뺨뺨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수십 년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마침내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시는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여건을 두루 고려해 주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는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예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자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북한산 조망을 최대한 살리고, 학교

와 맞닿은 부분에는 공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해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광장 주변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개발사업과 구역 내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교통계획 또한 다수의 개발계획과 연계했다. 대상지 남측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도로체계를 조정해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생활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한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포켓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해수부, 부산·경남 어업인과 기후변화 논의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가 24일 부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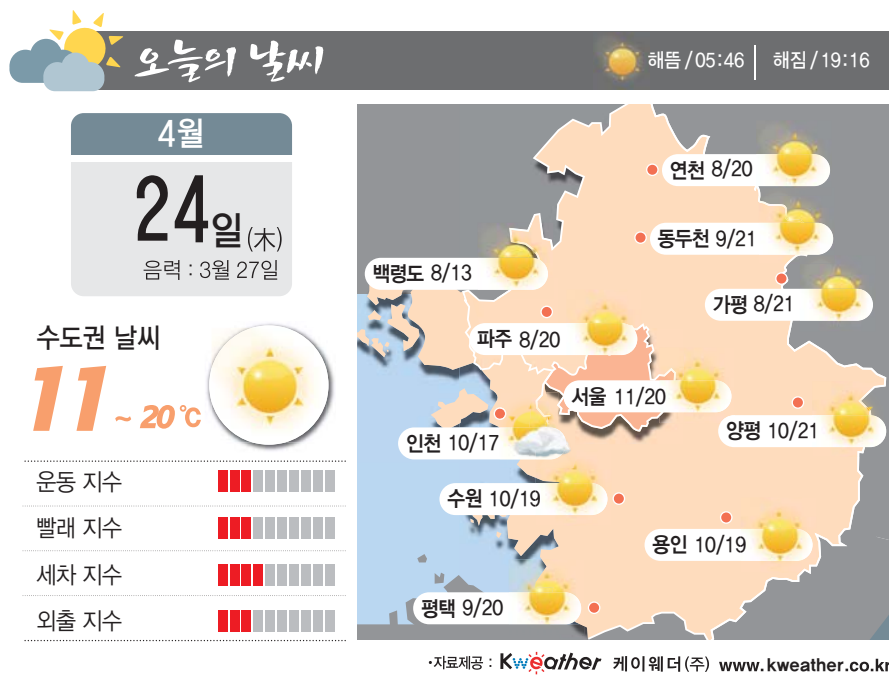
포럼이 열리는 부산·경남 지역은 국내 수산업과 관련된 2, 3차 산업이 집적된 수산업의 대표 권역이다. 부산·경남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43.2%)과 생산액(33.5%)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경남은 전남과 함께 상습적인 고수온 피해 다발 지역으로 꼽힌다. 기후변화 영향을 타개하기 위한 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또 인근해 어업 및 양식업 분야 관련 어업인들의 고충도 청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경남에 이어 5월 중에는 강원·경북·울산 지역에서 어업인과 지자체,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경기·인천에서 개최된 지난 포럼에서 어업인 등 관계자분께서 보내주신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미국, 베트남 주재 외교관들에 “종전 50주년 행사 불참하라”
▲러시아, 비우호국 화장품, 향수에 35% 추가 관세
/사진 뉴시스

▲푸틴-오만 술탄, 역사적 첫 정상회담…미·이란 핵협상 등 논의
▲도요타, 상하이에 연산 10만대 렉서스 신공장 6월 착공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년 만에 데브리 두 번째 반출 성공
▲가자 전쟁 비판 뒤끝?…이스라엘, 애도 올렸다 가 삭제



농심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온실 착공
L1



Life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 1조 돌파
영업이익 120%↑
L2



청량함에 압도적 가성비까지 “속 뚫리는 상쾌함 느껴봐요”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깨끗하고 깔끔한 맛에 품미 살린 ‘발포주’
소비자 부담 덜어주는 ‘초가성비’로 인기
출시 7개월만에 1억캔 판매돌파 인기몰이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의 놀라움을 느껴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발포주 ‘필라이트’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출시 후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 25일 출시한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조 노하우로 만든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는 4.5도다. 100% 아로마 호프를 사용하고 맥아와 국내산 보리를 사용해 깨끗하고 깔끔한 맛과 품미를 살려낸 것이 특징이다.

발포주는 일반 맥주와 유사한 외형과 맛을 지녔지만, 맥아(보리의 싹을 킴운 것) 함량 차이로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 세금 제도에 따라 분류되는 주종이다.

9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발포주는 ‘불황에 잘 팔리는 술’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지금까지 일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필라이트 역시 출시 직후 20일만에 초기 물량으로 선보인 6만 상자(1상자 355ml 캔 24개)가 모두 팔리는 등 인기몰이를 했다.

출시 7개월만에 1억캔 판매를 기록한 필라이트는 12개월만에 2억 캔, 22개월만에 5억 캔, 41개월만에 10억 캔을 돌파, 가속화를 이어가며 국내 주류시장에 완벽히 자리잡았다.

출시 2년차인 2018년부터는 매년 3억 캔(355ml 기준) 이상 판매하며 이달 22일까지 총 누적 판매 23억6000만 캔을 돌파, 국내 메가브랜드로서 발포주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 결과 필라이트는 치열한 가정 주류시장에서 8년 연속 발포주 점유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필라이트는 현재 국내 가정 시장 5개 유통채널 ▲개인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조합마트, ▲체인슈퍼 모두에서 각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의 다양한 한정판 제품들로 기존 발포주 시장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제품을 매년 선보여 브랜드 혁신과 소비자 소통을 지속하며 가정 주류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필라이트와 필라이트 후레쉬에 이어 2019년 ‘필라이트 바이젠’, 2020년 ‘필라이트 라들러 레몬’, 2021년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 2022년 ‘필라이트 체리’, 2023년 ‘필라이트



25일 출시되는 필라이트 클리어.

트 퓨린컷’, ‘필라이트 로우 칼로리’를 출시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모든 한정판 제품이 3개월 이내 전량 출고되며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No.1 브랜드로서 국내 발포주 시장 확대를 위해 ‘필라이트’의 새로운 라인업 ‘필라이트 클리어’를 25일에 출시한다. 필라이트, 필라이트 후레쉬 등에 이은 9번째 제품으로 최근 소비자 트렌드인 ‘깨끗하고 깔끔한 맛’에 주목해 개발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필라이트 클리어 역시 슈퍼 클리어 공법을 적용해 발포주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듣는 제품이다.

맥아 함량이 10% 미만인 발포주는 보리, 전분 등 비맥아 원료를 활용해 배합, 발효, 여과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다. 일반적으로 발포주 주원료인 보리는 맥아에 비해 발효도가 낮아 발효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하이트진로는 100년 양조 기술력과 노하우로 만든, 독자적인 노하우를 통해 맥주에 준하는 높은 발효도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레몬·자몽 등 다양한 한정판 제품 선봬 슈퍼클리어 공법 적용한 ‘클리어’ 출시 높은 발효도 구현해 발포주 한계 넘어

또한 보리의 발효를 극대화하는 효소제의 투입량과 주원료의 비율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공정을 수백 차례 반복한 결과, 맥아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맥즙의 잡미는 최소화하며 깔끔한 목넘김과 청량감을 모두 갖춘 고품질의 발포주가 탄생하게 됐다.

제품명은 핵심 요소인 ‘클리어(CLEAR)’를 담아, 깨끗하고 깔끔한 제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패키지 디자인은 은색으로 투명하고 상쾌한 이미지를, 파란색으로 깨끗한 목넘김의 의미를 담았다. 또, 차별화를 위해 필리 캐릭터 없이 ‘生’(생) 표기를 적용해 본연의 특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필라이트 클리어’는 4.5도의 알코올 도수로 캔(350mL, 450mL, 500mL)과 PET(1.6L) 용기로 출시되며, 25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필라이트 클리어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출시와 함께 TV광고 및 온라인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집중 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 소비자 접점에서는 브랜드 체험 및 다양한 판매 연계 활동을 통한 음용 경험 확대도 강화 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발포주 시장 압도적 NO.1을 넘어 레귤러 맥주와도 직접 경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필라이트 후레쉬.



필라이트
다양한 한정판 제품들



▲이정후, 밀워키전 3타수 무안타 ‘침묵’…1볼넷 1득점
▲축구협회 “동아시아컵 7월 용인·수원 개최 준비”
/사진 뉴스스

▲마이클 조던, 역대 스포츠 선수 수입 1위…우즈 2위·호날두 3위
▲2026년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호추 니엔 선임

▲기부 공연 나서는 신구·박근형 “열악한 연극계에 힘 되길”
▲세계 문화리더들 서울로…예술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LG와 함께할 가슴 뛰는 미래

AI,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중한 시간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쓰는 미래

고객의 시간 가치를 높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